

3·1 운동 100주년 빛나는 유산, 계승 발전



[3·1 운동 100주년 특집]

『동유록』 근촌 백관수의 대춘보, 봄을 기다리는 마음 (P 2)
- 백 순 (법대 58)

백년의 봄, 산운 장도빈 선생의 민족 정신을 기억합니다 (P 3)
- 장수인 (음대 76)

삼일절과 현순 목사 (P 4)
- 조동준 (의대 57)

유관순 선배를 생각합니다 (P 4)
- 오(조)봉완 (법대 53)

삼일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P 5)
- 이석호 (공대 66)



백 순 (법대 58)

아니 인류역사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8 운동과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로 연결되는 한민족 독립운동의 1세기를 맞이하면서, 3.1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의미와 특징을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YMCA에서 선포된 28 독립선언서와 같은 해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부르짖은 3.1 독립선언서,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 헌

첫째, 3.1 독립운동의 공통성은 1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식민주의가 종식되어 가는 세계 추세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사상을 제창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전쟁과 침략이 없는 평화의 사상을 부르짖었다.

대내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28 선언서는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규범을 따라"를 제창하였고, 3.1 선언서는 "인류 평등에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 등을 부르짖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1조는 "민주공화제"를, 제3조는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을, 제4조는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평화와 관련해서, 28 선언서는 "최후 동양 평화의 견지를 보건대"를, 3.1 선언서는 "동양 평화로서 중요한 일부를 삼는

>> P 2 계속

3.1 독립 운동 100 주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동양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해야 한다고 하는 인간과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과 가치를 근본적인 목표로 추구하면서,..."

2019년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민족적으로 선언하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한지 9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인 스스로의 의지로 한국의 독립을 외치는 독립운동을 적국의 수도 동경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 서울에서 한국 민족 모두가, 그리고 중국의 상해에서 한국지도자들이 실행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한국역사,

다시금 새롭게 탐색해 봄으로서 아직도 동북아시아 평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놓여 있는 한국의 진면목을 인지하는 데 얼마의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장 등에 나타난 정신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3.1 독립운동의 사상적 공통성과 특성을 탐구해 보기로 한다.

제28차 평의원 회의, 뉴욕

2019년 6월 21~23일 (금, 토, 일)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 카네기 홀 축하 공연, 6월 22일 오후 8:30

호텔 예약과 공연 등 자세한 안내는 P 13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특집: 3.1 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필요한 단계가 되게하는 것이다"를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7조는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둘째, 3.1 독립운동이 모두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사상을 공동적으로 제창하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선언하고 주도한 주체와 독립운동을 수행한 장소를 감안하여 볼 때, 3.1 독립운동의 특성과 상징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8 운동은 동경 유학생들이 적국의 수도 동경에서, 3.1 운동은 한국 민족의 종교 및 정신적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정치적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에서 단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에서 3.1 독립운동의 상이한 특성을 탐색할 수 있다고 하겠다.

28 운동은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를 요청하고, "일본에 주재하는 각 나라 대사와 공사에게 우리 단원의 의사를 각 정부에 전달하기를 요구하고"를 결의하는 등 진취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요구가 실패할 때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한다고 하는 혁명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3.1 운동은 선언서 공약 3장에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천명한다고 하는 포괄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질서를 존중"한다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그 헌정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제2조에서 "임시정부가 임시 위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고 하는 실천적이며 건국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28 독립운동과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 및 특징을 탐색하면서, 아직도 세계평화 아니 동북아시아 평화의 핵을 쥐고 있는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창한 한국인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3.1 독립운동이 제시하는 교훈이라 여겨진다.

즉,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동양 및 세계평화에 공헌해야 한다고 하는 인간과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과 가치를 근본적인 목표로 추구하면서, 한국문제의 해결은 [1] 진취적이면서 혁명적으로, [2] 포괄적이면서 인도주의적으로, 그리고 [3] 실천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이루어 진다는 교훈이 아닐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org
www.snuua.org



근촌 백관수 (1889~1951)

<시집 평론>

『동유록』 근촌 백관수의 대춘보

봄을 기다리는 마음

백 순(법대 58)

근촌 백관수의 차남,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 교수

근촌 백관수는 동경 메이지 대학 유학생으로서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여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YMCA 회관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동경 감옥에 투옥되어 1년 여 감방생활을 하면서 한시를 지어 그의 심정을 형상화하였다. 1920년 3월 25일에 출옥한 후 한시를 정리하여 [동유록] (東幽錄)이라 이름을 붙여었다. [동유록]에 수록된 71편의 한시를 통하여 근촌의 사상과 정신, 심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근촌 백관수는 [동유음]에서 그의 한국 독립에 대한 열정을 감옥안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 (심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의 [동유음] 첫 시가 이를 잘 표출한다.

正當二月時/春色尙何遲/三疊幽窓下/也吾獨不知
정녕 때는 2월이건만/봄 기운 아직도 어이 더딘가/3 다다미 크기의 감방 창 아래에서/역시 나 홀로 모름이런가
Surely now is February, though;/Why does the springtime come late still?/
Imprisoned in three tatami-size prison cell with a window,/I am only one not to recognize it.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투옥된 후 2월이면 봄이 오고 있을 터인데 감옥안에 갇혀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봄 빛을 느끼지 못하는 봄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닌지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봄은 한국의 독립이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봄은 4가지 한국독립의 봄이다.

(1) '기다리는 봄'은 반 만년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 독립의 봄이다.

그가 바라는 봄이란 반 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대륙 동방의 땅/무궁화 반 만년의 봄이 오겠고) 한국이 독립하는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그 봄은 따스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확신을 나타낸다.

(2) '기다리는 봄'은 충의로운 나라사랑이 열망하고 있는 한국 독립의 봄이다.

고려의 정포연이 보여 준 '일백년 고쳐 죽어'의 나라사랑이나 일본의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들어 낸 '일곱번 다시 태어나 적을 멸할 것이다의 나라사랑(이 충성스러운 마음과 정의로운 가슴 어찌 다르리오)이 그 토록 기다리는 봄을 표출해 주고 있다.

(3) '기다리는 봄'은 열국의 강화조약을 통

하여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는 한국 독립의 봄이다.



28 운동 대표들

그 국제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 제창했던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하여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 질 희망, 즉 한국 독립의 봄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열강사이의 이권다툼으로 한국 독립의 봄은 오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세력이 약한 것을, 더구나 살아 남아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기다려 지는 봄인 것이다.

(4) '기다리는 봄'은 28 운동이 불씨가 되어 한국 전역에 독립운동이 번져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한국 독립의 봄이다.

근촌 백관수가 기다리는 봄은 28 운동이 작은 기폭제가 되어 한국 전역에 거국적인 독립운동 (3.1 운동 같은)이 사사자 3백을 넘고/지금 체포된 자 7천 여명)이 일어 나고 그를 통하여 한국 독립의 봄이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리라. 한국 독립의 봄이 도래하는 날 28 운동의 외침은 개선가가 될 것임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근촌 백관수는 [동유록] 후편에서 그의 한국독립에 대한 열정을 동경 감옥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 (심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의 부끄럽지 않은 마음은 [동유록] 후편 마지막 시인 '자위가 (自慰歌, 스스로 위로하는 노래)'에서 잘 들어 내고 있다.

仰而不愧/俯亦不愧/俯仰不愧/有何悔
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음이여/미 굽어보아도 부끄러지 않음이여/굽어보던 우러러 보던 부끄러움 없으니/무엇 뉘우칠 일 있으리오

Being not ashamed toward heaven;/ Nor being ashamed toward earth./ Being no ashamed toward earth and heaven,/What to be repented?

근촌 백관수는 마음 속으로 크게 홀로 외치고 있다. 위를 우러러 보거나 아래를 굽어 보거나 어디를 보아도 그의 28 독립선언의 외침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마음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커다란 옴움과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끄럽지 않은 마음'에 대한 3가지 모습을 [동유록] 후편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1) '부끄럽지 않은 마음'은 한국의 독립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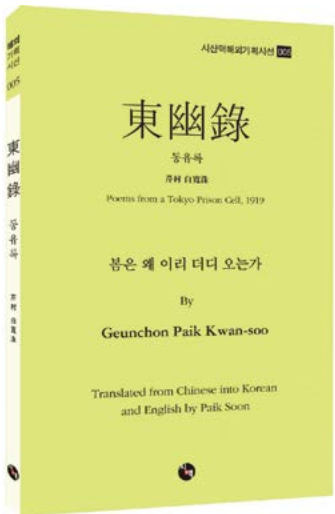
감옥안에서 그 해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28 독립운동의 결실은 늦어지고, 밖에서는 제야를 보내는 축제 소리가 감방안에 들려 오는데, 감방안의 외로운 등불이 오히려 본인의 한국독립을 향한 일편단심(외로운 등

근촌 백관수의 시집 『동유록』 (사산책)



도쿄 YMCA 앞에 선 필자

그 때 마침 1919년 1차세계대전을 끝내면서 파리평화회의의 (Paris Peace Conference) (소식 들었네 강화조약이)가 열리고 있어서



특집: 3.1 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백년의 봄

산운 장도빈 선생의 민족 정신을 기억합니다



장수인 (음대 76)

장수인

산운 장도빈 선생 손녀

1919년의 3.1 운동이후 오늘날까지의 100년은 소망이었고 회복이었다.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값지게 이룬 100년이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나라 사랑의 신념과 열을 기리며, 그 중 한 분이신 친조부 산운 장도빈 선생 (1888-1963)의 일생을 나눈다. 동문과 함께 백년지대계, 조국의 먼 장래까지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꿈꿔보고 싶다.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장도빈 선생께서는, 나라사랑과 민족사랑에 일생을 바치신 분이셨다. 독립운동가이셨을뿐 아니라 실천적 민족주의 사학자, 언론인, 교육자, 사회운동의 선각자 이셨다.

산운 장도빈 선생은 평안남도 중화에서 1888년에 출생, 5세에 사서오경을 통독하여 신동으로 평양 감사의 추천을 받아 한성사범학교와 보성전문법과를 다니셨다. 단재 신채호와 함께 항일비밀결사(1907) 활동을 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과는 신민회 활동을 통해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섰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붕괴시키려는 식민사학에 맞서 김구, 신채호 선생과 함께 한민족의 자율 주체성과 역사, 민족의 우수성 등 민족사관을 교육하여 구국청년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약관 21살의 나이에 대한매일신보 신채호 주필과 번갈아 논설 주필을 하였다. '금일 대한민국의 목적지'라는 항일필봉의 논설 등으로 늘 일본군사에게 쫓기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셨다. 일본총독암살모의 사건으로 1912년 망명하여 북간도와 블라디보스톡에서의 항일투쟁시절에는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의 발해 동경성 유적의 첫발견자로서 그 기념비가 아직도 그곳에 서 있다. 주요 저술인 국사조선역사요령, 조선위안전 등이 그 답사를 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내인 김숙자 여사(나의 친할머니)또한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 운동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이끌고 참여하고 독립군 군자금 모금으로 일제에 체포되어 '독립운동의 거거리'로 불리웠던 여성 독립투사이셨고 할머니의 부친과 동생(김응원)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애국지사 집안이었다.

장도빈 선생은 1919년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1920년 한성도서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때 출간한 '조선지광'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잡지이다. 광복 후 월남하여 초대 이승만 정부의 공직 추대를 받으셨으나 친일파가 포함되어 있는 정부라고 거절한 강직한 분이셨다. 민중일보에서 공산 언론에 대항하였고

불만 일편단심 마음 붉게 비추이네)을 붉게 열정적으로 비추어 내고 있음을 표출한다. 바로 이 붉게 드러나는 일편단심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마음'인 것이리라.

(2) '부끄럽지 않은 마음'은 28 독립선언이 자유와 정의에 근거한 선언이라고 하는 마음이다.

자유는 인간이 인류역사상 오랜 시간동안 피 흘려 쟁취한 인간 근본의 가치이고, 정의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간의 올바른 척도일진데, 28 독립선언은 바로 이러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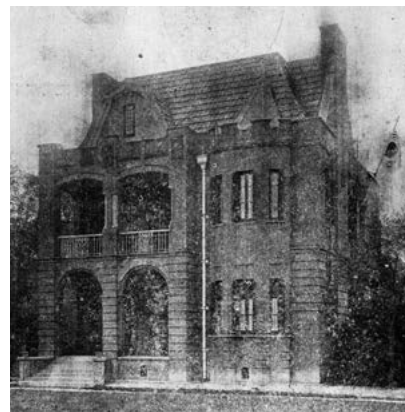
산운 장도빈 (1888~1963)



상해 임시정부 3.1절 기념식



파리 평화회의 임시정부 대표



상해 임시정부 청사



산운 장도빈 기념비, 우스리스크시



장도빈 선생과 가족 (선생 무릎위 필자)

한국대와 단국대를 설립하시고 초대학장을 지내셨다. 장도빈 선생의 삶은 모든 것이 조국광복과 변역에 직결되어 있었고 나라사랑

의 큰 틀과 연결되어 있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국사, 조선역사록, 조선사, 대한역사, 이순신전, 한국의 혼, 고구려, 발해 등의 저서가

유와 정의에 근거를 둔 운동(자유 원래 가치가 있고/정의 본래 치우치지 않네)이라고 하는 부끄럽지 않은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3) '부끄럽지 않은 마음'은 28 독립선언이 인간의 대의와 도의에 따른 운동임으로 그 운동 자체에는 잘못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운동에 스스로 후회하고 잘못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다.

28 독립운동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있을 수 없지만, 스스로 후회가 있다고 하면 큰 일을 척도일진데, 28 독립선언은 바로 이러한 자

전시되어있다.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고 이제는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지금 이시대에도 먼 타국땅에서의 우리 이민 세대는 3.1 운동 후 백년의 봄을 맞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어우동(어차피 우리는 동지)' 마음으로 나라사랑을 하고 있다. 한마음으로 한 목적지를 향하는 참된 동지가 있는 삶은 참으로 든든하고 아름답다.

장도빈 할아버지의 셋째 아들의 셋째 딸인 나는 보스톤에서, 3.1 운동 100주년을 새겨보며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에게 바치는 헌정 음악회 '백년의 봄 * 이다. 애국지사들의 아름다운 애국의 마음,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100년의 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가 이를 수있었던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뜻깊은 '백년의 봄' 음악회를 준비한다. 젊은 서울대 동문 음악인들 20명으로 구성되어 선구자, 청산에 살리라, 아리랑과 봄음악들을 연주한다. 우리나라 사랑의 마음도 새롭게 울려주고 애국애족하신 선조들께 이시대 젊은이들이 바치는 감사의 아름다운 봄 음악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실로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삶을 사셨지만,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신 장도빈 할아버지의 나라사랑, 민족사랑의 길이 내일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수되기를 바란다. 백년 후,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이는 우리 이민 세대들은 어떤 뜨거운 민족사관을 갖고 이국 땅에서 살아나가고 있는가?

100년 전의 이 봄을 돌아켜보며 후세들이 존경할 수 있는 정의롭고 민족의 우수함이 빛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꾼다.



*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에게 바치는 헌정 음악회 '백년의 봄', 3월 15일

민국의 해방을 가져 오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근촌 백관수가 동경 감옥안에서 간직하고 있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한 한국의 숙명적인 현실 앞에 한국인이면 누구나 아직도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처절한 심정이 아닐런지?

저의 아버지(근촌 백관수)이 28 독립선언서 낭독 후 동경 감옥에 투옥된 다음 1년여 감옥생활이 지은 한시 71편을 한글과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동유록] 제목의 시집을 펴낸한 글입니다.

특집: 3.1 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조동준 (의대 57)

삼일절과

현순(1880~1968) 목사

삼일절 독립운동이 벌써 100년이 지났다. 감개무량함이 있지만, 마침 꼭 한 마디하고 지나갈 일이 있어, 더더욱 의미를 찾는다. 옛날 조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독립국의 당당한 혜택을 상상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의심이 된다.

두말없이, 우리는 선조들의 끊임없었던 독립운동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사실은 8월 15일은 2차대전에서 패한 일본에게서 연합군이 우리의 주권을 찾아주고,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준 날일 뿐이고, 그렇지만 1919년 3월 1일은 우리의

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가을에 두 번째 정부청사를 방문했을 때는 옛날의 사진은 보이지 않고, 새로 걸린 큰 사진에 도산 선생이 가운데, 신익희 선생은 그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순 목사가 양복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보고서, 현순 목사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이름이기는 하나, 당시 활약하신 중요한 분임을 감지했다.

그런데 LA에서 그 분 아드님이신 데이비드 현 씨를 만났다. 데이비드 현 씨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 아랫줄 맨 오른쪽이 현순 목사

독립국을 세계만방에 당당히 선포한 날이다. 그러나 이날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는 자랑스러운 날이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전후해서 그 중심에서 가장 눈신 활동을 하셨던 현순 목사의 업적이 그때의 독립사에서 빠져 있다니, 삼일절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현순 목사께서는 하와이와 LA에서 사시다 세상을 떠나가신 분이다. 현순 목사를 소개한다면, 13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서울 정동 교회 3대째 목사로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임명한 초대 주미대사로도 일하신 분이다.

14년 전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답사한 일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데 벽 전면에 도산 안창호 선생과 현순 목사가 양복을 입고서 나란히 사이좋게 앉아 찍

는 당시 1992년 LA에서 창건된 한미 박물관 건립 추진회 이사장으로, 또 Little Tokyo에 있는 Japanese Village plaza를 건립한 건축가로서 특히 Japanese Community에 잘 알려진 분으로, 필자도 창립이사로서 또 모금 운동 위원장으로 일한 까닭에 가까운 사이였다. 당시 부친의 자서전과 유업 서류를 정리하시느라 그리고 묻혀져 버린 아버지의 업적을 찾고 잘못 쓰여진 독립운동사를 바로잡느라고 노년에도 혼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알았다.

Japanese Village plaza를 설계하고 건립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작품상을 받은 미주 한인 최초의 건축가이다. 또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미연합회(KAC)를 창립했으며, 1992년 한미이민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창립이사장으로서, LA 한인 사회에서는 큰 어른이시다.



오(조)봉완 (법대 53)

유관순 선배를

생각합니다

매년 3월 1일이 닥쳐 오면 관순 선배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선배가 참석했던 31 운동이 일어 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배가 순교하신지 15년 후에 태어난 이 후배도 벌써 80이 넘었으나, 매년 3월 1일이 닥쳐 오면 관순 선배를 생각합니다.

선배와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인지 보통때도, 관순 선배가 자주 생각합니다.

분단되어 위기에 처해있는 조국의 장래를 우려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순교하신 선배의 힘을 빌리고저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평화, 천안, 이라는 아름다운 충청도 소도시에서 태어나 서울의 이화 학당에 유학 갔다가, 3.1 운동이 터지자, 참여하고

학교는 폐교 되어, 하향했으나 관순 선배는 고향에서도 조국 독립 만세 운동을 조직하고 압장했습니다.

어여운 17세의 소녀로서, 온 동네와 산산 곡곡의 고향의 선민을 이끌다가

투옥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자백하고 사과하라는 일본제국 경찰의 협박을 거절하고

끝 끝내 버티다가 순교 한 유관순 선배... 우리나라의 잔 다르크...

선배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 노인이 된 후배의 마음이 애절하도록 아름답니다.

매년 3월 1일이 닥쳐 오면 유관순 선배를 생각합니다.

Dr. Bonnie Oh Distinguished Professor of Korean Studies (Ret.) Georgetown University

현순 목사는 인품이 겸손하신 분으로 일찍 일본으로 가서 영어를 배우시고 미국의 기독교와 민주주의 문화에 접하시고 1903년 하와이 이민 제2진에 참가하셨다고 한다. 1911년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셔서 곧 전국 감리교 주일학교 감독관이 되시어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며 국민 계몽 운동에 힘을 썼다고 한다.

3월 1일 독립운동을 전후해서 현순 목사의 활동을 찾아보면 7인의 기독교 목사에 의해서 계획되었던 3월 1일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33인의 서명자의 위임을 받고 비밀리에 중국 상해로 빠져나와 세계

언론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온 세계에 선언하신 분이라 한다. 당시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를 하셨다고 말한다. 또 여행의 자유를 가진 선교사의 신분을 심본 살려서 시베리아, 서울 등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설득하고 화합을 끌어내어서 상해 임시정부 후, 1930년에 초대 주미대사에 임명을 받고서, 워싱턴 DC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미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의 승인을 얻고자 애썼다 한다.

1923년부터 1941년까지는 하와이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다 한다. 1945년 그리던 조국 방문

>>

특집: 3.1 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이석호 (공대 66)

삼일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삼일운동 자체의 자세한 내용은 모두가 잘 알 것이기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건너뛰어서 시작하자.

삼일운동은 오천 년 동안 지배계급의 압제 밑에 짓눌려 생각하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하고 짐승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한 국가의 주권자라는 자의식을 갖게 한 민족사적인 대사건이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임을 깨닫고 압제자의 집을 나서 고향땅으로 돌아가는 Exodus의 길로 나섰던 "유월절 혁명"과 같은 의미가 있다 해도 전혀 과장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의 유월절 혁명이 압제자이던 이집트를 전복하는 무장투쟁이 같은 폭력적 수단이 아니라 극히 평화적이고 철저한 비폭력적 수단으로 진행되었듯이 우리의 삼일운동 역시 철저히 평화적인 시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삼일운동은 총칼을 동원한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과 국제사회의 외면으로 국내에서는 실패로 끝나고 이것을 해외로 무대를 옮겨 계속한 것이 4월 11일에 중국 상해에서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만주에서 시작된 무장독립투쟁이 아닌가 한다.

그 후 소련의 스탈린은 민족주의 성향 있는 데다가 지식인들이 많이 섞여있는 독립군들이 장차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 여겨 독립군들을 강제로 열차에 실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의 벌판에 내다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때 중앙 아시아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다수가 소련군들의 총에 희생되었는데 그 숫자가 1,500명에 이른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독립군 투사들은 이차대전 초기 독립군에 계속 밀려든 소련군에 징집되어 총알받이가 되는 모진 운명을 맞게 된다. 그 후 상해 임시정부와는 관계없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선인들이 조직한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이 나타나고 이 조직에 중

사한 다수가 해방 후 북한에 들어와 북한 정권의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내에서의 삼일운동과 그 여파로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의 독립군에 의한 무장독립투쟁은 점차로 약해졌고 대신 상해임시정부 초대수반이었던 이승만이 김구에게 밀려나 미국으로 건너간 후 미국을 등에 업고 추진한 독립운동이 한창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에 1945년 해방을 맞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정설로 되어왔던 학설과 한국의 현 정권의 편에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구글이나 참고도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해방전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그친다.

해방이 되자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는 38도 선으로 분할되고 이승만과 김구 등 독립투사들이 각기 개인 자격으로 남쪽의 서울에 들어왔고 북한의 평양에는 본명이 김성주라는 인물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군복이 아닌 소련군 장교복 차림으로 평양에 나타났다. 즉 서울과 평양 어디에도 독립군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소련군과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나타났을 뿐이다.

그리고 유엔의 감독하에 남북한이 동시에 비밀 자유 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반과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소련측의 유엔 선거관리위원들의 북한입국 거부로 좌절되고 할 수 없이 남한만의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서울의 정부가 유엔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북한 지역은 남한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 수복 영토로 정의되게 되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두되는 주장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서울의 정부는 미제의 점령군에 의한 식민지 정부이기에 정통성이 없고 따라서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선포한 상해임시정부의 탄생일을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현 정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이 되어 이르면 올해부터 4월 11

을 시도했으나, 유엔에 의한 남한만의 총선거를 지지하지 않았다해서, 비자를 받지 못해 조국 방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68년 LA에서 서거하셨다. 독립운동사에 현순 목사의 업적이 빠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

김연호 (외교 88)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기대를 저버리고 합의 무산(No Deal)으로 끝났다. 사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1월말 스탠포드 대학 연설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정상 간에 스물달이 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건 특별대표의 연설을 통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적극적 협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토대로 신뢰를 구축해 가자는 북한의 지속적인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 만큼 최소한 영변 핵시설 동결과 상응조치를 맞바꾸는 달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미국 사회의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에서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욕심으로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했을 정도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은 철저한 사전준비 없는 정상 간의 담판이 얼마나 무모한 시도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업적으로 국내 정치적 수세를 만회하기 위해 bad deal이라도 받아들일 것으로,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담판에서 빅딜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오만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wishful thinking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시로 눈이 가려져, 비즈니스 협상 스타일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딜 가능성을 간과했다. 굿딜을 원하지만, 조건과 가격이 안 맞으면 노딜도 불사한다는 건 자동차 딜러십에서도 흔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김정은과의 핵버거 담판'에서 화염과 분노와 '코피전략'을 오갈만큼 정책 옵션의 진폭이 굉장히 컸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워싱턴의 컨센서스는 북한과의 'bad deal'보다는 'no deal'이 낫다'로 모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과 같이 준비 안 된 정상회담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미 양측이 정상수준에서 상대방의 협상카드를 확인했고, 협상 결렬 이후에도 상황관리에 애쓰고 있는 사실은 이번 회담의 보이지 않는 '성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북미 협상에 관심을 돌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면서 제재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지, 양측의 실무협상팀이 얼마나 권한을 이양받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어느 하나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그만큼 한국의 고민과 역할도 커 보인다.

한미경제연구소(KIE) 비상근 연구위원

일이나 아니면 8월 15일이 아닌 다른 날을 건국절로 제정해서 정식으로 기념될 모양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러한 주장을 하는 목적이 역사를 바로잡는 데 있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상해임시정부를 이끌어 온 김구와 만주에서 독립군을 지휘한 유일한 사람인 김일성 장군이라고 북한이 선전하는 김성주라는 본명의 인물을 연계시켜 대한민국 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려는 데 있는 것이 뚜렷해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설령 상해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의 전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쳐도 김일성 왕조를 받치고 있는 북한의 정부를 시작한 인물들은 김구와 접촉하고 상호 협력

하는 관계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상해임시정부가 아니라 소련의 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기에 북한의 정부를 삼일정신을 계승한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우선 북한 건국기념에 삼일운동의 정신이 얼마나 심도있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부터 알아보고 그런 주장들을 해야 순서가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의 서투른 생각으로는 삼일운동의 정신이 헌법에 인용되어 있고 정부수립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한 이승만, 김구 등 인물들이 상해임시정부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이기에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통성있는 정부는 역시 대한민국의 정부이며 그 건국일 또한 8월 15일로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하얀 눈으로 덮힌 산과 호수 경치는 가히 알프스 기분”
뉴잉글랜드 동창회 마운틴 메이저로 겨울 산행



【기사: 김정선 (문리 66), 산악회 회장】
날씨 때문에 두번의 겨울 산행을 취소 한후, 동문들과 함께 2월 23일 드디어 겨울산 Mt. Major (1,784 ft)에 올랐다. 얼어붙은 거대한 호수 Lake Winnepesaukee가 하얀 눈위에 떠있고, 둘러선 겨울 산들이 조그만 섬들을 내려다 보고 있는, 아름다운 눈 덮힌 자그마한 산이다. 출지도 않고 바람도 없고 따스한 햇빛까지 내리쬐는 착한 겨울 날씨, 동문 산우회원 13명은 어린아이들 처럼 행복해 하며 아름다운 설산 雪山을 신선한 공기와 함께 가슴에 담아 왔다.

마운틴 메이저 정상에서.

겨울에는 얼음과 눈이 덮힌 바위 산길이 조금 위험하긴 해도, 하얀 눈으로 덮힌 산과 호수 경치는 가히 알프스 기분을 낼 만하다. 정상에서 멀리 회색빛 겨울 산맥 뒤로 이곳의 최고봉 Mt. Washington의 그림자가 어렵 곳하다.

8시에 모여, 카풀로 Trailhead에 도착, 간단한 준비 운동후, Main Trail로 아침 10시에 오르기 시작 11:45 정상에 도착했다. 옛 집터에서 점심 식사를 나누고12:30 Boulder Loop Trail로 하산, 130 피킹릿 도착. 4 mile, elevation gain 1,200 ft, 대박 겨울 눈 산행이었다.

뉴햄프셔의 작은 산 Mt. Major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올라도 아름답다. 특히

“AI가 가져올 엄청난 변화가 눈 앞에...”
워싱턴 주 동창회, 3월 SNU 포럼 개최



Jenna Lee 전무



김재훈 회장, Jenna Lee 전무

【기사: 김재훈 SNU 포럼 회장, 시애틀】
워싱턴주 동창회 SNU 포럼의 3월 세미나가 지난 9일 Kirkland Library에서 열렸다. Microsoft에 근무하는 외부 초청 강사인 Jenna Lee 전무(Head of Internet of Things (IoT) Solution)가 “4차 산업혁명과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기술과 비즈니스의 융합 강연’이었다.

Jenna Lee 전무는 강연에서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AI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내년까지 대기업 가운데 85%가 AI를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등에 채용하고, 미국에서 3년 내에 AI로 인해 창출될 매출이 40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현재 전세계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나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소위 ‘C 레벨’의 최고위직들과 만나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서의 혁신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제시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그녀는 “현재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다 엄청난 데이터의 축적,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로 인해 산업이나 생활 전 분야에서 급속도로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지와 상관없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사물인터넷의 급속적인 발달로 인해 ‘스마트(Smart)한 생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가령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활용품들이 서로 연결(connect)돼 AI를 이

“4월 골프대회 준비 완벽합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3월 임원 정기 모임



참석자들이 거실 계단에서 앉아 잠시 포즈를 취했다. 맨 뒤 선 이가 한귀의 회장, 맨 앞자리 앉은 이가 최용준 총무국장. 그 뒤 두 번째 줄 왼쪽은 민일기 차기 회장, 오른쪽은 손영아 부총무.

【기사: 이종호, 남가주 총동창회 사업국장】
남가주총동창회 3월 임원 모임이 지난 9일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한귀회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모임은 저녁 식사, 안건 토의, 여흥 및 일부 임원들의 밤샘 MT(멤버십 트레이닝) 등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1박 2일로 진행됐다.

한귀회 회장, 민일기 차기 회장, 김용준 총무국장 등 모두 14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임원들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 토너먼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



‘콜로니얼 풍’의 드레스를 맞춰 입고.

사 당일 차질 없이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의논했다.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토너먼트는 오는 4월 13일 오후 1시 패서디나 브룩사이드 골프장에서 샷건 방식으로 시작되며 참가비는 1인당 80달러다.

참석 임원들은 또 7월 27일 할리우드보울 가족의 밤 행사와 8월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될 노동절 동문가족 캠핑 행사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올해 총동창회 임원진 정기 모임은 매달 첫 째주 목요일 열리고 있는데 3월은 한귀회 회장이 특별히 자택을 오픈하기로 해주기에 진행됐다. 특히 한 회장은 이날 모임을 위해 맛과 정성이 듬뿍 담긴 스테이크와 랍스드, 와인 등을 준비해 임원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또 여성 참석자들을 위해 ‘콜로니얼’ 풍의 드레스까지 따로 마련, 모임 분위기를 18세기 동부 귀족들의 우아한 파티모임처럼 만들어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참석자들은 식사와 회의를 마친 후 자택에 마련된 노래방 기기에서 밤늦도록 뒷풀이를 가지며 팀워크를 다졌다.

2019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 4월 - 황현정 박사 (UW 경영학과 교수): Social Network Services - Innovative use of social media by business
- ▶ 5월 - 황치욱 박사 (광주 과학기술원 교수, UW 교환교수): TBD - 인간과 같은 로봇 (Robot)이 가능한가?
- ▶ 6월 - 조수행 박사: 경영과학의 추세와 응용 - Business analytics and its applications
- ▶ 7월 - TBD
- ▶ 8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 9월 - TBD: 세계적으로 유명한 Concert Hall 및 Opera House로의 여행 (Journey to The World Famous Orchestra Concert Halls and Opera Houses)
- ▶ 10월 - TBD: 박길호 팜칼럼니스 (SBS 이석영의 러브 FM 해설자): 추억의 팍송 해설
- ▶ 11월 - TBD;
- ▶ 11월 (강의 및 중강 파티 장소) - TBD: 장소 제공하실 분 접수 (선착순)
-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Yearly General Meeting)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혁신이 적용된 분야는 주로 콘텐츠 산업이었지만 이제는 사물인터넷 (IoT)과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들이 기존 제품을 스마트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제품 혁신이 모든 산업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뉴욕지역 약대 동문회
2019 신년 동문의 밤
타 단과대 동문도 많이 참석

【기사: 강교숙 (간호 73)】
지난 2월 23일 오후 5시 뉴욕 플라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 다이아몬드 홀에서 2019년 서울대 약대 뉴욕지역 동문의 밤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준희(음대 회장)동문의 지휘로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교가제창



으로 막을 올리고 금영천 동문 (전 약대 회장)의 사회로 배상규(현 약대 회장)의 인사에 이어 내빈 소개와 축사에 골든 클럽 회장인 손경택 동문, 격려사에 이준행 동문, 김영덕 동문, 이준구 동문의 하모니카 연주, 내빈 축하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교가제창

패 증정은 배상규 회장이 금영천 약대 전 회장과 김성현 뉴욕 약사 회장과 함께 전달하였다. 축하와 축하 연주는 바리톤 이준희(95) 동문, 바이올린 연주에 김기환(11) 동문, 소프라노에 박윤희(13) 동문, 피아노에 황소희(08) 동문이 하였다.



【기사: 백옥자 조직국장】
지난 2월 12일, 남가주 법대 동창회 (회장: 최진석, 법대 64)의 신년 첫 모임이 용수산 식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많은 동문이 참여하

남가주 법대 동창회 신년 모임 개최

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최진석 회장은 평소 법대 동창회 모임에 보다 많은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 지난 법대 동문 여행에서는 30여 동문이 태

평양 연안을 1박 2일 기자 여행을 다녀오면서 더욱 서로간 친근함을 재확인하는 기회도 성공적으로 가졌다. 이날 US 아주투어 박평식 회장이 초청강연(인터뷰 참조)을 하여



최규환 (법대 69) 재무국장, 김선기 (법대 59) 자원위원, 최진석 (법대 64) 회장

큰 호응을 받았다. 최진석 회장은 원로이신 김규현 (법대 53) 님, 이기준 회장님 (법대54), 이태로 회장님 (법대56), 정인환 회장님 (법대 54) 이하 전체 동문의 후원으로 최고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한 살림으로 항상 입가에 웃음꽃이 피고 핑크빛 혈색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로 생일을 맞은 동문을 위한 축하 케이크 커팅 순서도 있었다. 동문간 친목에 끈근함을 느끼게 했다.

US 아주투어 박평식 회장 인터뷰

글: 백옥자 조직국장

이날 행사에는 US 아주투어의 박평식 회장을 초청 강사로 초대하여 여행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을 보며 행복을 느끼며, 서로의 대화에서 단합된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며, 배움을 깨닫고 신비로운 광경을 감상하며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여행의 방법을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박평식 회장과 인터뷰 내용이다.



US 아주투어 박평식 회장 강연

아주투어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하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US 아주투어란 이름에는 여러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단독 버스 투어, 단독 광고, 최초 모국관광, 최초 의료관광, 모국에 달려 보내기 운동, 지금은 업계 표준이 된 멜로스톤 5-8-9 코스 등 여러 미 서부 코스들이 아주의 작품입니다. 저를 비롯한 아주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객분께는 아주로 여행하는 여행이 어쩌면 그 여행지를 찾는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투어멘토로 동행하여 직접 고객 분들을 모십니다. 현장을 누비면서 여행

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알차고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요즘 단체 건강세미나를 많이 하시는데 서울의대를 비롯해서 이번 서울법대 동문님들께 강연한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초청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강연에서 늘 여행과 인생, 여행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건강의 지름길은 웃음입니다. 웃고 행복해지는데 여행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행이 건강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잘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동문회에서 빈 서울법대 동문님들의 앞에 여행을 통해 행복과 풍요를 누리려는 나날이 펼쳐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여행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유럽 여행은 터키와 그리스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서유럽이나 동유럽을 돌면 유럽의 매력이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짐을 싸고 다시 푸는 번거로움이 없는 편안한 크루즈 여행도 좋고, 아프리카 나코카스3국, 남미와 같이 이국적인 여행자들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여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여행의 장점이 단지 가이드가 여행을 인솔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더 큰 장점, 단체여행을 통해 ‘여행 친구’ 나이가 ‘인생 친구’

구를 얻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할 때 주의 해야할 점이나 어떤 분은 어떤 여행이 좋다고 권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분들에게 여행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구 방방곡곡 여행할 만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행을 떠나십시오. 단체여행을 떠나기 앞서 코스나 호텔, 식사를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여행지를 가는데 아주와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여행이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가 두 시간 비행기타고 가는 거리를 반나절 내내 버스로 이동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허름한 호텔도 안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주는 코스, 호텔, 식사, 가이드까지 여행을 관통하는 모든 요소들을 구성극성 신경씁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US 아주투어가 올해로 창사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시는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장수, 최고 한인 여행사로서 가장 좋은 여행서비스를 선사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건강과 행복, 아주가 여행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현 (의대 46) 동문 9순 잔치겸 자서전 출간 한평생 의사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게 건강의 원천”



9순 잔치에서 송재현 박사 부부



손녀들에게 세배를 받는 송 동문 부부

자리했다. 송 동문은 1929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 재령 명신 소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기 공립 중학교를 거쳐 서울대 예과의과) 3학년 때 6.25를 겪었다. (회보 2018년 8월호 참조) “내 나이 벌써 90세가 되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내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 내가 살아 온 그때와 그때의 주변, 내 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싶었다”고 자서전을 쓴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낸다. 친구와 좋은 시간을 자주 갖는 것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말한다.

【출처: 시카고 타임즈 기사 편집】
송재현 (의대 46) 동문이 지난 1월 26일 구순잔치를 했다. 시카고 근교 노스부룩 크라운 플라자에서 가족과 친지, 동문 등 100여 명이 모여 조촐한 잔치를 벌이고 자서전 ‘나의 끝은 어디나?’도 소개했다. 수필가인 아내 이숙경 님과 2남1녀, 7명의 손녀들도 함께

김구자 (미대 61) 동문, 우주의 질서를 화폭에 담다



COSMIC FANTASIA (우주환상곡), 2018, 48" x 96"

【기사: 홍선례, 문화극장】
지난 2월3일부터 28일까지 LA 아트 코어(LA Art Core at the Union Center for the Arts)에서는 김구자(미대 61) 동문의 초대전이 열렸다. Cosmic Fantasia(우주)를 주제로 한30여 점의 최근 대작들이 전시되어 미술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 첫 날인 2월 3일에는 작가와 대화의 시간이 가졌는데, 많은 동문과 친지들이 작가의 품세계를 경청하는 진지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 협화음은 많은 아티스트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나 역시 이 조화로움의 세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합니다. 나는 보이는 세계의 빛과 어둠의 대비, 보이지 않는 소리의 리듬과 패턴을 포착하려 노력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나를 잊어 버리고 호기심 강한 시선으로 경계 없는 자연세계를 탐구하며 예술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MUSIC OF THE SPHERES (천구의 음악) G#4, 30" x 48"

김구자 동문이 설명하는 그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들어 본다. “자연과 그 현상의 경이로움에 자극과 영감을 받아 왔습니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 자연에 매혹되고, 자연 현상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내포되어 있는 위엄성을 두려워 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나의 창작력은 순구쳐 오릅니다. 어느 순간 별이나 해, 달, 은하수, 구름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해나 달, 모든 행성의 조화로움 움직이는 이들이 내는 독특한 협화음 때문이라고 생각한 2600여년 전 고대 히랍 철학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표현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극작가이며 시인이고 동시에 미술평론가이신 장소현(미대 65) 동문의 전시회 소감이다. “음악과 과학의 연관은 진동하는 현의 길이와 음높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발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엄종열 (미대 61) 동문 뉴욕주 West Point 미술사 생도회 특별 초청 ‘한국문화유산’강연



강연하는 엄 동문

【기사: 엄종열 동문, 필라델피아】
지난 2월 23일 토요일, 미주한국전통문화연구원 엄종열(미대 61) 원장이 뉴욕주 West Point 미술군사관학교 생도회 특별초청으로 ‘한국문화유산’이란 제목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생도들에게 소개하는 뜻깊은 강연회를 했다.

현재 한국계 사관생도가 100여 명이 재학중인 본교는 6.25 전쟁초기 UN군 총사령관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지휘하여 전세를 역전시킨 다글러스 맥아더 원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미국 대통령,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사령관 그랜트 장군, 남군의 사령관 리 장군을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사관학교다. 한인생도들에게는 민족 문화 정체성과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생도들에게는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라 금관과 에밀레주, 한국 가면 등 30여가지 대표적인 우리 문화 유산을 비롯해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세계최초



한인 생도들 기념촬영



엄 동문 부부



엄 동문 부부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서양보다 200년 전에 발명되었다고 전해진 측우기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 세계 최초의 철갑 전투함 거북선과 백전백승으로 세계 해전사상 전무후무한 해전사를 장식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은 앞으로 세계 최강의 미군 지도자가 될 참석 생도들에게 대단한 관심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2014년 Mexico City에 위치한 멕시코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의 훈” 공모전에 참가하였고 2015년에는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 걸음 앞으로(Another Step)” 초대전에 참여한 바 있다. 2018년 LA 웨스턴 갤러리에서는 “침터(Dwelling)”라는 제목으로 초대전을 열기도 했다.

이같이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김구자 동문이, 화폭에 그려 내는 “우주의 신비한 소리”가 기대된다.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 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김구자 동문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했다. 그 후 1967년 미국으로 유학 온 후 Oakland에 있는 “California Arts & Craft Collage”에서 응용미술과 판화를 전공했다. 졸업 후 1969년부터 2001년까지32년 동안 오하이오주 Cleveland에 있는 아메리칸 카드회사(American Greetings Corp.)에서 계약직 아티스트(Artist under Contract)로 근무했다. 그 후 본격적으로 회화 작업에 들어 가 자연 현상들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화폭에 담아 내었다.

‘백년의 봄’ 성황리에 개최 3.1 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헌정 음악회, 보스턴



Soloists of New England

【기사: 장수인 (음대 76), 부회장】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과 헌정 음악회가 보스턴 소재 그라운드프 뮤직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6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장수인(음 76) 단장이 기획하고 주관한 이 헌정 음악회에는 보스턴 지역 3.1절 기념 행

사와 한인 가족들이 함께 하는 특별한 가족 행사로 기획되어 부모와 자녀들, 1세대와 2세대, 다문화 가정의 부부들 모두가 손을 잡고 3.1절의 뜻을 되새겨 보는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다.

이날 행사에는 뉴햄프셔 한인회, 메인과 RI 한인회 등 뉴잉글랜드의 전 한인사회가 함

서설(瑞雪)과 함께 하는 봄맞이 노래의 향연 심희진 (음대 90) 동문의 Faculty Concert 열려



심희진 (음대 90)



【기사: 김정현 (공대 68), 필라델피아】
밤사이 소리 없이 내려 쌓인 흰 눈이 만든 하얀 세상, 3.1절 낮 12시에 필라델피아 외곽 Glenside에 위치한 Arcadia University 캠퍼스 안에 있는 Grey Tower Castle(사진) Mirror Room에서 Dr. 심희진(음대 성악과 90) 동문의 공연이 열렸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낮 12시에 열리는 Faculty Concert는 Samuel Heifetz 교수가 이끄는 Piano Trio가 연주하는 차이콥스키의 ‘March, Song of the Lark’로 봄을 알리기 시작했다.



비교적 현대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들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 장소인 Grey Tower Castle은 미국 내에서 보기 힘든 영국풍의 캐슬로 특히 공연이 열린 Mirror Room은 천면 아치 모양의 창문들과3면 벽이 거울로 장식되고, 높은 천장까지도 고전 그림으로 장식된 클래식한 12개의 시종 ‘Dear March, come in!’과 ‘The Spring is at the Door’ ‘Spring’ 등



Tenor 이규영 (04), Sop. 나유선 (02)



연주자들이 기립하여 연주를 헌정



뮤직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

께 참여하여 남녀노소가 목청 높여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기리며 만세삼창을 불렀다. 윤상래 총동창회 회장님이하 수많은 동문도 참석하여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다.

기념식은 ‘백년의 봄’이란 제목으로 필라모니아 보스턴의 아리랑 연주로 시작됐다. 이어 한국 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서 선보

였던 독립선언서 낭독 모습이 스크린에 상영되며 한국 광화문의 감동이 보스턴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동문 연주자인 나유선 (02) 소프라노와 이규영 (04) 테너의 청산에 살리라, 선구자 등의 솔로, 바리톤 김승윤 (05)의 애국가 독창 등과 함께 100년 전 삼일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의 귀한 영상이 더해져 감격을 배가했다.

2부의 헌정음악회는 거의 서울 음대 동문들로 꾸며진 Soloists of New England의 연주였다. 순교 선열의 희생을 존경을 보내며 연주자들이 기립하여 연주를 헌정하였고 4중주, 8중주, 16인 챔버 <챔버리더 김현정 (02)와>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그날의 아름다운 희생을 추억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한국 전통 무용과 클래식 음악의 만남 (An Enchanted Evening of Korean Dance and Classical Piano)” 이소정 (음대 84) 동문 기획



제레미 워드, 이소정 동문, 이매덕 단장, 양종훈 동문

【기사: 김병용 회장, 시카고】
Illinois Arts Council의 후원으로 2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시카고 근교 엘진에 위치한 저드슨 대학교에서 동양과 서양의 두 다른 장르의 예술이 접목되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이소정 (음대 84, Judson University 교수) 동문과 시카고 한국무용단 이매덕 단장이 함께 기획한 콜라보 공연으로, 한국전통무용의 대표적인 살풀이춤, 태평무, 승무가 서양 클래식 음악의 반주로 무대에 올려졌다. 이소정 교수의 피아노 솔로, “코리안 랩소디”, “아리랑 판타지아”, “파랑새”, “밀양아리랑”도 해설과 함께 연주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첼리스트 제레미 워드와 장고연주자 양종

윤 (음대 12) 도 반주에 함께 참여하였다.



공연의 취지는 한국전통무용과 서양음악이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소리와 몸짓의 조화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한국 문화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https://youtu.be/yhjQzzzW-M>

인 앙코르 요청과 함께 쏟아내었다.

심희진 동문은 템플데에서 박사학위 후, Bloomsburg University, Temple University, 그리고 Arcadia University 등에서 강의해 오고 있다.



최찬혁 (의대 57)

Search for Bioimaging Biomarker Capable of Guiding Response Adapted Personalized Radiotherapy and Chemo-Radiotherapy in Lung Cancer

Enhanced glucose metabolism is a hallmark of malignant cellular transformation, and a dramatic decline of glucose metabolic function in response to a radiotherapy (RT) or chemo-radiotherapy (CRT) may be a biomarker for successful eradication of all cancer cells.

When the residual glucose metabolic rate (MRglc) was measured at 10 days, 3 months (m), 6 m and 12 m after RT or CRT, the maximum tumor metabolic response (MRglc-MMR) was found to be realized 10 days

post-therapy,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endorsement of 3-4 months. B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levels of MRglc-MMR and their tumor control probability (TCP) at 12 months and beyond, we can determine the optimal cutoff values of metabolic level.

Patients with high risk of retaining residual cancer (incomplete metabolic responders) can be identified by MRglc-MMR (> optimum cutoff value) and a boost dose of RT can be administered in a timely manner, whereas those with complete metabolic response (MRglc-MMR ≤ optimum cutoff value) can avoid an extra dose of RT, its associated toxicities and cost.

Noah C. Choi, M.D., Professor of Radiation Oncology, Harvard Medical School, Distinguished Scholar in Thoracic Oncology,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MA



고종성 (사대 71)

정밀 의학 Precision Medicine: From gene to therapy for lung cancer

Precision medicine is "an emerging approach to disease treatment and prevention that takes into account individual variability in genes, en-

vironment, and lifestyle." This may also be called targeted therapy. The hope of precision medicine is that treatments will one day be tailored to the genetic changes in each person's cancer. In recent years, big scientific advances have created new precision treatment paradigms and new hope for lung cancer patients. In a presentation, I will discuss the "renaissance" in the lung cancer landscape that has come with the rapid evolution of targeted treatment for patients with alterations of EGFR, ALK, ROS1, c-RET, or BRAF gene.

Dr. Jongsung Koh GENOSCO 대표이사, 국가 글로벌항암사업 단장,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장, 국가 지정 연구실장, UC Berkeley 방문연구원, Caltech 박사과정 졸업



소강표

Next-generation Super Materials through NanoEngineering

Historically, materials have been vital to the advancement of society, to the extent that epochs are branded based on materials such as the Stone Age, the Bronze Age, and the



변만식 (사대 49)

Letter of Commendation

This letter is meant to commend Mr. Paul Chung(정평희 공대 71) for his distinguished service to SNUAA Greater Washington Area for which he was elected as 36th President in the month of July 2018.

Yet, now at this earliest stage(02/05/2019) of his term, hardly ever had a half year passed since his inauguration, he has demonstrated outstanding leadership by virtue of adding the alumni membership to the multitude, 2/3 of which are new members. Having control of all 3 level of unified La rue de Maronie Seoul Campus-es(-1975), Acropolis(80-99) and 샬로 수(2000-)which acronym derived from the emblem on Guan-Ak campus gate) How the freshman President made this magic happen is truly remarkable.

To recall, our D.C chapter has come a long way from the start in 1979 organized by 조성윤(법대 48) Nonetheless, the honey moon sentiment did not last too long by gradual loss of the member due to the relocation of residents, deaths and many are gone to hermitic retirement, so be disseminated. Meanwhile the overall operation had been upgraded and geared up in digital network system during the term of 오인환(전문 63) by his own efforts. For years of 3 decades the active partic-

ipants continually declined and activity remained in stalemate without fresh blood inducement.

On this nick of time Mr. Chung's arrival was more than welcome. The first thing he did was to publish the monthly eNewsletter and sent via email to all WDC chapter members. He also updated the alumni Directory in order to add new members, refreshed Acropolis and 샬로 수 meetings by use of so called 번개팅 adoption of Zoom and Band. Thanks to his efforts, attendance of the events has drastically increased. The latest issue (10 pages) contained broad range of varieties and also alumni's respectively. Mr. Paul Chung's helping revive of SNUAADC Alumni is truly invaluable. He has shown a good example of role model. Aspiration, Devotion and Coordination

It is too often the story of success is lost and forgotten through the years but he will, no doubt, leave an indelible mark in our SNUAA history in the USA. Therefore, I want to utterly praise him for his energetic efforts in vitalization of DC Chapter. Let's go together ever onwards to the paramount of VERI TAS LUX MEA. Yours cordially, I remain.

6th President of SNUAA.DC.

Iron Age. To adress world energy consumption and growing environmental crises, contemporary society demands new materials with advanced properties: lighter, stronger, more resilient, and more functional. However, conventional engineering sets limits these properties, slowing the growth of critical technology. Nanoengineering seeks to control the location of atoms to create complex, nanostructured materials to exceed conventional limitations.

This emerging paradigm for developing high-performance materials promises to enable wide-reaching technological advances including power generation, transportation, and energy saving, improving global quality of life and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Kangpyo So MIT postdoctoral associate Institute of New Paradigm of Energy Science Convergence 박사후 연구원 성균관 대학교 석박사 통합 졸업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김영애 (음대 56), Vista California
▲ 김유송 (공대 50), 필라델피아
▲ 김 현 (농대 62), 보스턴
▲ 손석보 (공대 68), 북가주
▲ 송은주님 <전 로키마운틴즈 동창회장 송요준 (의대 64) 동문 부인>, 콜로라도주

동문 문단



소나기

박윤수 (문리 48)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진다. 사람들은 옷을 적신다고 소나기가 내린 걸 불평을 한다. 나는 소나기에 옷이 젖어도 고마운 마음으로 즐긴다. 마른 땅은 해갈을 하지만 나는 영혼의 물은 때와 번뇌를 씻는다.

퍼붓는 비속에 몸과 마음을 맡기자. 인생의 모든 허물도 씻어 버리자.



보슬비

늦은이에게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 밖을 내다보니 이 밤에 보슬비가 내리네. 꽃밭이 그리워 찾아온 보슬비야, 나도 너처럼 그리운 이 찾아가 볼까.

앞마당 언뜻에도 찾아와 동그라미 그리네. 내 마음에도 동그라미 그려다오. 풀밭에도 찾아왔네. 푸름이 그리웠던가? 더욱 푸르러지는 내 마음.

제21회 「해외문학상」 시부문 대상 심사평

노년의 삶을 그린 서정시

박윤수 시인의 대상 수상작들은 노년의 삶에 관한 시인의 새 경지를 개척한 데 대해 크게 주목되는 서정시의 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시인은 수상작 「보슬비」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우수한 서정시를 형상화했다. 폐허 같은 노인의 마음에도 새 생명이 느껴지는 '동그라미'를 그려달라고 줄라 댄다. '보슬비가 찾아오니 가을 나뭇잎 같은 화자의 마음이 푸르러 진다.

해서 온갖 인생의 시련을 겪다가 노년이 되어 그 별들과 헤어져 고독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적 대상인 별들은 시인이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되고 세 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이 별들은 "내가 그리울 때마다/ 반짝이는 뉴욕의 별들"이 되고, "밤하늘에 보이는/ 그 많은 별들 중에", "더 그리우면/ 내 꿈에서도 보이네"라고 읊고 있다. 참으로 감동적인 서정시이다.

시인은 노년의 삶에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시 「봄이 오지 않아도」에서 "불꽃같은 햇빛이/ 노출된 피부를 따끔하게 자극"하는 것을 보니 "기다리던 봄이 왔다"면서 "활기찬 노인들이 휠체어를 굴리고/ 들에 나와 화단을 가꾸고/ 골프채를 걸머지고 가네"라고 기다리던 봄이 와서 노인들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시에 담고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주름진 얼굴 속에 행복과 기쁨이 보인다"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FROM DREAMS TO REALITY 새로운 재료와 폐암치료를 중심으로

designed by 정현웅 (대학원 94)

SPEAKERS

소강표 Kang Pyo So, Ph.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postdoctoral associate, Institute of New Paradigm of Energy Science Convergence 성균관 대학교 석박사 통합 졸업)

발표주제: Next-generation Super Materials through NanoEngineering

고종성 Jong Sung Koh, Ph.D, CEO, GENOSCO (GENOSCO 대표이사, 전 국가 글로벌 항암사업 단장, 전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장, 전 국가 지정 연구실장, 전 UC Berkeley 방문연구원, Caltech 박사과정 졸업)

발표주제: Precision Medicine(정밀의학): From Gene to Therapy for Lung Cancer

최찬혁 Noah C. Choi, MD (Professor of Radiation Oncology, Harvard Medical School Distinguished Scholar in Thoracic Oncology,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발표주제: 방사선을 이용한 폐암 치료

4월 6일 (토) 오후 3-5시 MIT Stata Center (Rm 32-155) 31 Vassar St., Cambridge, MA

주최: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세미나 후, 저녁식사 제공. 문의: 978.835.0100(윤상래 회장)



BRAIN NETWORK SEMINAR SNUAAUSA



송세진 (치대 78)

미네소타에서 경험한 두번의 Polar Vortex

지난 1월 29일 화요일에 뉴욕 CBS 방송국에서 일하는 딸이 전화를 해왔다. 내일 수요일은 미네소타에서 최고로 추운 날이니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 내일 St. Cloud에서 endodontic apical surgery를 내가 받아야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그래도 나가지 말라고 아버지를 말한다.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polar vortex가 5년만에 다시 미네소타, 더 넓게는 미국 Midwest 지역을 덮쳤다. 다음과 같은 뉴스 헤드라인이 그 상황을 잘 이야기해준다.

"Polar Vortex Brings Record-Breaking Deep Freeze to Midwest" (1/29/2019. weather.com); "3 Days of Polar Pain - Wind Chills Bottom Out at -50F Wednesday at MSP" (1/28/2019. Paul Douglas on Weather); Polar Purgatory - 28F below This Morning at MSP - Dangerous Wind Chills Linger" (1/30/2019. Paul Douglas on Weather).

필자는 한국에서 미네소타로 이주한지 10년만에 두 번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경험했다. 처음 미네소타에 와서 치과 의사로 3년간 북쪽의 추운도시 Bemidji에서 일할 때 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남쪽의 비교적 따뜻한 Twin Cities 집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나의 애마 Cadillac Eldorado 1994를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없었다.

남극의 추위보다도 더한 추위를 가져오는 북극의 polar vortex는 어떠한 것인가? Vortex는 일종의 소용돌이이다. 북반구에서 polar vortex는 가장 차가운 공기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저기압 주머니(pocket)인데, 겨울에는 강화되고 여름에는 약화된다. 크기는 보통 직경 1,000 Km (620 miles)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counter-clockwise)으로 회전한다. 겨울에 이 포켓은 주로 북극을 에워싸고 있지만 태평양 동부나 서부에서 거대하고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면 미국쪽으로 몰려 내려올 수 있다. 태평양에서의 이러한 고기압이 약화되면 polar vortex는 북극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앞의 뉴스 헤드라인처럼 올해의 polar vortex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의 추위를 미네소타에 가져왔다. 이번 추위는 1996년 2월 이후 23년만에 찾아온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필자가 5년 전에 경험한 polar vortex 추위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월 30일 수요일 아침에 미네소타 중부의 Park Rapids는 화씨 마이너스 41도를 기록했고, Mayo Clinic이 있는 미네소타 남부도시 Rochester는 체감온도 -61를 기록했다. 이것은 남극의 Amundsen-Scott weather station (-49F)보다 12도 더 추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올해의 추위는 5년 전 polar vortex가 내려왔을 때보다 훨씬 심했지만 미네소타 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피해는 달했다고 본다. 5년 전에는 추위에 폭설, 강풍이 동반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폭설이 미네소타에는 없었다. 두 번의 polar vortex를 경험하면서, 5년 전에 필자가 겪었던 악몽의 추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다.

2014년 1월 26일 일요일 밤이다. Polar vortex

를 강행한 것이다.

어두운 밤에 눈범벅이 된 Interstate 94를 따라서 서북쪽으로 2시간 차를 몰았다. 이 하이웨이는 North Dakota의 Fargo로 가는 길인데, 고속도로 주변에 수 많은 차량들이 노면에 주차하고 있었다. 이 차량 운전자들은 더 이상 운전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나은 도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차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겨우겨우 운전해서 Alexandria, Minnesota에 도착하니 I-94가 폐쇄되었다는 안내가 나온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대형 트럭들이 더 이상 Fargo 방향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서 있었다. Alexandria의 모텔은 이런 이유로 가득차버렸다. 잠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 계속 진행해야 하나 아니면 모델방을 하나 찾아야 하나?

내 cell phone에 Google Maps를 뒤쫓았다. Interstate highway는 폐쇄되었으니, 로

를 스쳐지나갔다.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30분 정도는 더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다. 하얀 눈 때문에 길은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기본 신호등만 남기고 headlight lamp를 켰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다.

미끄럽고 위험한 길을 나의 애마는 계속해서 30분간 잘 달려주었다. Co.Rd. 27에서 우회전하여 북쪽으로 Co. Rd. 54를 따라 천천히 달렸다. Voila! 드디어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Elbow Lake, Minnesota! 와, 드디어 살았구나 하는 탄성이 마음속에서 터졌다. 다운타운 주유소에 차를 일단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 놀랍게도 차가 주유소안에 들어가니 서버렸다. Battery가 엔진 spark plug에 전기를 공급할만한 힘을 잃어 버린것이다.

내 평생 처음으로 911에 즉시 전화를 걸었다. Tesoro gas station에 내가 있다고 하니 곧바로 경찰차가 달려왔다. 너무 추워서 방향복 차림을 했지만 필자는 차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 경찰이 내 애마의 본넷을 열고 간단한 점검을 해주었다. 엔진의 serpentine belt가 벗겨졌다고 한다. 이미 자정이 되어서 belt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car shop이 있을지 만무하다. 정말 고맙고도 친절한 경찰이 나를 자기 차에 태워서 근처의 모텔로 체크인 해주었다.

시골 Elbow Lake의 그 모텔은 너무 추워서 필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은 그쳤다. 모텔 주변의 여러 car shop에 전화를 했는데, 모두다 바쁘다고 내 차를 수리해줄려고 하지 않았다. 어제 밤의 약천후로 차수리 센터들도 모두 바빴다.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 내가 지역주민이 아닌게 확실하니 이 동네의 사람들이 내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겠는가? 다행히 근처의 한 shop에서 견인차를 아침에 그 주유소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Car repair shop에서 얼어버린 엔진 주위를 녹인뒤 serpentine belt를 끼워주었다. 과거에 장거리 운전하다가 serpentine belt가 터져버린 경험이 있어서 나는 그 벨트를 비상용으로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닌다. 나는 그런 벨트도 힘들지 않게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혹한에는 따뜻한 작업공간이 없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다.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순간 동상에 걸리거나 얼어죽기 때문이다.

경찰에게서 serpentine belt가 벗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까 "No battery charge" 경고등이 켜진게 이해가 되었다. 눈이 가득 쌓인 도로를 혹한속에서 오레 달리다보니 엔진 벨트 주변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도로에서 얼음덩어리를 덜렁 넘어가면서 바닥에서 튀 얼음조각이 벨트를 쳐서 벨트가 벗겨지게 된 것 같다. 점심때에 벨트 수리를 받고서 또 미끄러운 길을 30분간 달려서 목적인 Fergus Falls에 도착했다.

치과 office manager 트리쉬에게 전화를 했는데, bad weather 때문에 오늘 dental clinic을 close했다고 한다. 이럴 수가! 내가 약속 시간 지킨다고 이렇게 고생하며 여기에 왔는데, Fergus Falls 시내의 한 모텔에 들어가서 편안한 하루를 보냈다. 어리석게 어제밤에 극한의 추위와 blizzard 속에서 운전해온 것을 후회하면서.

"No battery charge" 갑자기 더 긴장되었다. 시골길 주변에 집 한채도 보이지 않는데 차 배터리 충전이 안된다니 큰일이다. 차가 stop하면 바로 얼어 죽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tex가 미네소타를 뒀친 가장 추운 밤이다. 방송에서는 연일 혹한과 blizzard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 일하게 되는 Minnesota state-operated clinic에서의 job orientation이 예정되어 있어서, 걱정하는 아내를 뒤로 하고 I-94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Twin Cities에서 Fergus Falls까지 I-94를 이용하면 날씨가 좋을 때 차로 3시간 걸린다. 그런데, 혹한의 추위 속에 눈이 평평 내리고 있고 바람도 세워서 blizzard로 인해 눈을 치운 도로에도 눈은 계속 깔리고 있었다. 미국에 이주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한국적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던 필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다. 상식을 가진 미국인이려면 이런 상황에서는 약속을 취소하겠지만 어리석게도 필자는 한국적 정서로 억척 후, 가운데 운전

컬 county road를 따라서 목적인 Fergus Falls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미 밤은 깊어서 11시가 되었다. Highway를 나와서 Google에서 보여주는대로 서쪽으로 County Road 27을 탔다.

길이 여전히 험하고 blizzard가 심했지만 처음 20분간은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했다. 내가 판단을 잘했구나 자위하면서. 길에 얼어붙은 눈으로 인해 길은 울퉁불퉁했다. 나의 애마가 그 험한 길을 잘 달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약간 높은 얼음덩이를 통과하는데, 쿵 소리가 나면서 dash board에 빨간불이 켜졌다. "No battery charge". 갑자기 더 긴장되었다. 시골길 주변에 집 한채도 보이지 않는데 차 배터리 충전이 안된다니 큰일이다. 차가 stop되면 바로 얼어죽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

미주 동창회 제28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6월 21일 (금요일)	6월 22일 (토요일)	6월 23일 (일요일)
1:00 pm - 2:00 pm 등록 접수	6:30 am - 8:30 am 조찬	8:00 am - 10:00 am 지부 회장단 모임
2:00 pm - 3:20 pm 강사 1	9:00 am - 5:00 pm Spouse program (City tour, Metropolitan Museum 방문)	10:00 am - 3:00 pm West point & Hudson River 관광
3:40 pm - 5:00 pm 강사 2	9:00 am - 12:00 pm 제28차 평의원 회의	
5:30 pm - 9:30 pm 환영만찬	12:00 pm - 1:00 pm 오찬	
	1:00 pm - 4:00 pm 제28차 평의원 회의	
	6:30 pm - 10:00 pm 축하음악회(카네기홀)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8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18년 6월 21일 (금) ~ 23일 (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 Tel: 201-461-9000

호텔 예약 안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19년 6월 9일까지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9.00 plus tax, 14.625%/night) 더블 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시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최용렬 님 (201-582-5214)**
위 호텔 직원분께 직접 전화로 예약하시면 편리합니다.
- 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www.fortlee.doubletree.com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Special rate code를 클릭하시고, group code에 F71을 타입하시고 enter key 누르시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교통편 안내

공항에 도착 후 한인 Call Taxi, Yellow Cab 또는 우버를 이용하여 호텔에 오실 수 있습니다.

1 한인 Call Taxi 안내
 JFK 공항 Taxi: 21 miles (\$50+Toll=\$70)
 LGA 공항 Taxi: 14 miles (\$35+Toll=\$55)
 EWR 공항 Taxi: 20 miles (\$45+\$14=\$59)

* 한인 Call Taxi (김 과장): 718-888-8888, 718-888-9999

* 한인 Call Taxi는 공항 도착 24시간 전에 예약하고, 예약시, 항공사, 항공편 및 도착시간을 알려주면 도착 직후, 드라이버가 전화로 연락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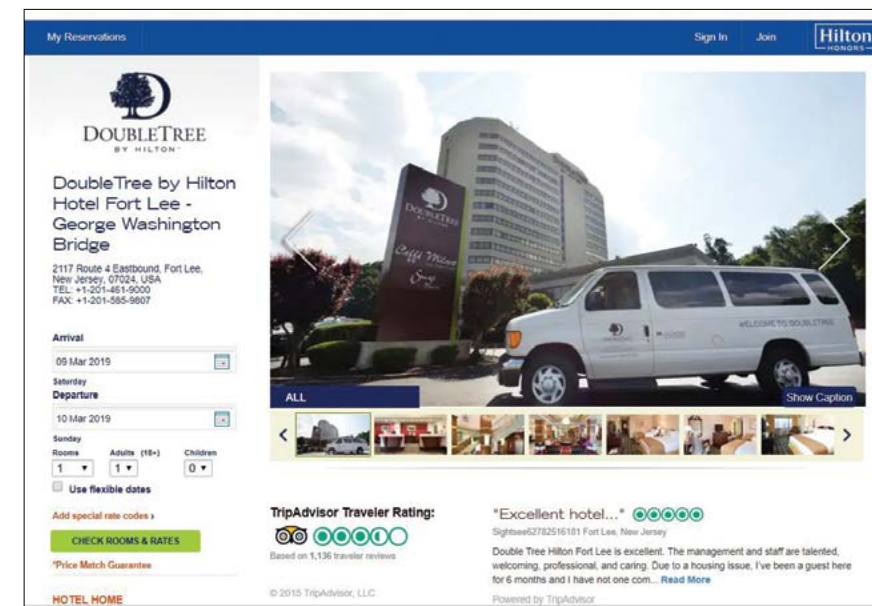
2 Yellow Cab 이나, 우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비용이 한인 Call Taxi 보다 15~20% 비싼편

3 응급 상황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남, 646-523-9606 / 허유선, 973-865-1749 / 문현호, 646-770-7028



Celebration of the 28th Assembly of Delegates Hos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Tickets: \$100/\$50 Reservation: 718) 463-3131 주최: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티켓 예매
미주동창회 축하음악회 "Summer Fantasy"의 공연 티켓 예매를 위해 일반인은 **carnegiehall.org**를 이용하시고 동문은 위 홈페이지 혹은 **718-463-3131**을 이용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티켓은 3월 말부터 판매 시작합니다.



(호텔 홈페이지 화면 캡처)



김은한 (의대 60) 회보 고문

<역사 이야기>

Attila는 왜 우리에게 장식보검을 보냈을까?

1973년 경주 미추왕릉 지구의 14호분의 배수로 공사에서 여태껏 보아 왔던 신라 보검과는 다른 모습의 장식 보검이 출토되었다. 한눈에 이 칼이 신라에서 만들어진 칼이 아니고 대변에 아랍이나 유럽에서 들어 온 칼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칼이었다.

발굴 공사 중에 적석목표요가 발견되어 조사가 이뤄졌는데 황금 장식 보검이 피장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에 놓여 있었고 두 쌍의 가는 고리 귀고리 (세형 이삭)와 비취옥 2점,



1. 그리스식 물결 무늬
2. 테두리는 누금기법으로 금 알갱이로 장식, 누금기법은 로마, 그리스에서 시작한 기법
3. 3개의 켈트식 삼태극 무늬가 돋보임
4. 값비싼 터키석으로 치장

Gibbon(AD 1737~1794)이 집필한 로마제국 쇠망사 제3권 344페이지에 훈족의 왕 아틸라가 중국 외교 사절에게 보낸 기록이 있다.

전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동쪽으로는 스키타이 사막에 대한 아틸라의 지배력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웠다. 확실한 것은 그가 불가강 유역을 지배했고 훈족의 왕은 전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마법사처럼)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강력했던 Geougen 족의 칸(Khan)조차도 모욕하며 복종시켰으며 중국과도 대등한 관계를 협상하기 위한 외교사절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사서에는 아틸라에 대한 기록이 일절 적혀 있지 않다. 당시 중국은 선비, 흉노 등 5호 16국이 할거하던 시대로 그중 선비족의 북위 탁발씨 현문 황제(AD 466~471) 연간으로 신라의 자비 마립간(AD 458~479) 시기와 맞물린다. 학자들은 훈족의 원류를 흉노에게 두고 있다. BC 2세기 이래 흉노와 중국은 끝을 모르는 전쟁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마침내 흉노가 제압당하면서 서기 124년에 흉노가 서쪽으로 1차 서진하여 아랄해 부근의 훈족이 되었고, AD 374년에는 4차로 서진하여 루마니아, 불가리아 지역에 이르게 된다.

흉노의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신라, 가야의 지도 계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훈족이 전 유럽을 석권하는 맹주가



서운석 (의대 62)

전나무숲



낙엽을 물고가던 돌풍에 밀려 비상해야만 했던 기러기떼들의 숨결이 차디찬 하늘에 몇가닥 조개구름이 되었지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이른 새벽 그들이 서둘러 떠난 후 매서운 바람은 회초리를 들고 겨울 내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쓸쓸한 연못의 빙판을 땀땀까지

추위에 버티고 섰던 전나무숲 오늘 아침 햇살로 눈부시고 눈덩이들도 가지에서 툭툭 떨어져 하나 둘씩 땅으로 숨어버리면 이것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 눈놀이와 하고 미끄럼을 타던 시끄럽던 아이들이 안 보이고 즐거운 날만이 우리를 기다리리

작열하는 태양이 입김을 뿜으면 두꺼운 연못의 어름도 녹고 잔잔한 물결이 일어날 것이리 연두빛 어린 잎과 가지를 흔들고 시린 대지를 보드랍게 스칠 바람 철새들도 타고 돌아오는 따뜻한 바람에 오, 싱싱하고 푸른 전나무숲에서 새봄의 맑은 노래가 울려 퍼지리

되었다면 재능있는 켈트족을 시켜 값비싼 장식 보검을 만들어 신라에 보낼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었을 것이다. 신라 고대 유물의 대가 요시미츠 츠네오 교수는 14호 고분에서 장식 보검과 함께 출토된 사자머리 형상의 버클에서 신라와 트라키아 간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 버클은 로마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4~5세기경, 그리스, 로마에서 유행하던 품목이었는데 값비싼 장식 보검과 함께 중국, 고구려, 백제를 제쳐 두고 구태여 신라를 택해 보낸 것은 그만큼 훈족과 신라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로마의 유리잔들이 천마총, 황남대총, 서봉총, 금령총에서 출토되고, 페르시아 사산조의 각배가 중국, 고구려, 백제의 무덤에서는 볼 수 없지만, 신라, 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 랑 (의대 63)

통찰력

‘insight’는 사전에 ‘통찰력’이라 나와있다. 지금껏 이 정신의학 용어를 ‘안식(眼識)’이라 우리말로 옮기면서 나는 미국에서 정신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참이다.

‘insight’는 통찰력이라 하지 않고 ‘속 모습, 혹은 유식한 한자로 ‘내부시력(內部視力)’이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자기만의 속 세상이 있다. 수박 겉핥기 식의 겉대기보다 숨겨진 진실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insight’를 ‘속 모습’이라 옮기면 훨씬 좋은 번역이 아닐까? ‘in(속)+sight(모습)=참 모습’이라는 등식이 너끈히 성립된다.

‘insight’에 대하여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듯 환자들에게 대화식으로 강의를 했다. 인사이트는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내가 듣기에도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정의를 내렸다. 한 환자가 어떻게 자기 속을 볼 수 있냐고 질문한다. 다른 환자 왈, 그거야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잘난 척 펴려한다.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내를 얼굴 표정을 통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보여주는구나, 하며 나도 고개를 끄덕인다.

정신과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사이트는 자신의 정신병이나 정신상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뜻한다. 인사이트는 자기의 속 마음을 눈이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 기능이 없거나 상실되는 관계로 의사와 상담치료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해결하고 무엇을 나아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실마리도 힌트도 없는 삶을 산다.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와 공포증(Phobia) 환자들은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그 고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대체로 속수무책이다. 너무 몰라도 불행하고 너무 알아도 고생을 하니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환자들은 한술 더 뜬다. 그들은 자기들의 요란한 마음가짐과 유별난 행동이 하나부터 열까지 남들 때문이라는 사고방식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이다. 이쯤 되면 인사이트의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빠져들고 틀린 인사이트가 차고 넘치는 꼴이다.

인사이트는 정신과와 심리학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일반적 개념으로도 통용된다. 그래서 사전에 ‘통찰력’이라 나와있는 것이 매우 적절한 설명이다. 인사이트는 자기 속 마음만을 관찰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심정, 사회적 현상, 그리고 일반 사물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지혜라 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상스러운 인사이트로 남을 위한 배려심(配慮心)이 첫 번째로 손꼽힌다. 배려심이란 남의 존재를 인식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나는 환자들에게 힘주어 말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배려심이 없다. 심지어는 그를 세션 도중에 난데없이 크게 노래를 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을 인간적으로 모욕하면 안된다는 배려심을 챙기면서 질문을 던진다. - “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없느냐?”

아가 자신에 대한 안식(眼識)을 키우려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 된다고 주장했던 환자가 이렇게 말한다. - 환정 때문 속에 마음이 꽉 차 있어서 (‘My mind is fully occupied’)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려 했더니 이미 그 거기에 다른 사람이 버티고 앉아 큰 불일을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는 혼동스럽게 곁돌며 말한다.

먹고 말안장과 재갈을 태우고 무기도 태우는데 신라와 가야에서는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 무기를 태우고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아틸라와 후세의 영웅 칭기즈칸은 장사지낸 다음에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 수 없었고 장례를 도와준 모든 사람이 순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라에서는 지증왕 이후, 순장이 금지되었지만 가야 대성동 무덤에서는 순장이 계속되었고 고려 지산동 44호분에는 32명이 순장되었다. 이로써 먼 옛날에는 우리도 같은 무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와 가야가 훈족의 원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설은 사



송윤정 (인문 89)

교복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옆에 으레 광고가 실리는 토너에 한 고개 숙인 남학생 사진과 그의 가슴께에 겹쳐진 “저 그냥... 고등학교 안 갈까 봐요.”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같은 날 보았던 드라마 <SKY 캐슬>의 마지막 회가 떠올랐다. 교복 입은 중, 고등학생을 둘러싼 입시경쟁 과열을 다룬 드라마로 마지막 회엔 주인공 남학생이었던 ‘우주’가 학교를 자퇴하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터버터벅 걸어 나갈 때문이라는 사고방식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이다. 이쯤 되면 인사이트의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빠져들고 틀린 인사이트가 차고 넘치는 꼴이다.

한국에서 성장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나는 단 한 번도 교복을 입은 적이 없는 희귀세대다. 내가 중학생이 되는 해 고

학 때도 심지어 미국에 이민 온 후에도 입었는 데.

교복에 가방을 멘 학생이 무슨 사연으로 “고등학교 안 갈까 봐요.”라고 하는가 싶어 클릭해 열어보았다. ‘세이프더질드런’ 국내 저소득 아동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1분여의 짤막한 동영상이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형인이는 할머니와 여동생과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살아가는 아이다. 어려서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몇 해 전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폐지를 수거해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동생은 중학생에 형인이는 고등학생에 진학할 나이. 동생의 중학생 교복도 마련 못 할 형편인지라 자신의 진학을 접으려는 아이. 2019년 봄 새 학기 230여 명의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교복을 포함한 학용품 지원을 위해 기부

"가득이나 획일적으로 지어진 학교에 모두 같은 옷을 입기를 강요받은 아이들은 가치관이나 사고도 동일하기를 강요받고 통제된다. 게다가 교복의 가격이 비싼 곳은 수백만 원에 이른다니..."

복 자율화가 실행되어 중고등학교 육 년 동안 사복을 입었다. 대학에 들어가 관악산에 꽃이 만발한 봄이던 분홍색 셔츠도 초록이 싱그러운 여름엔 노란 미니스커트, 원색 반바지도 입고 다녔다. 선배들은 교복을 입고 자란 세대만 보아오다가 자율화 이후 세대가 교정에 나타나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관악산에 자리한 서울대 교정은 군부 독재 시대에 설계돼 콘크리트로 미적 감각은 전혀 고려치 않은 건물들만 있는 데다 대체로 무채색의 우중충한 옷을 입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런 형편의 아이가 이 재단이 지원하는 230여 명뿐이겠는가. 교복을 시행해야만 한다면 한 아이도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가정 아이의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에게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닌가. 굳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복 마련에 자리한 서울대 교정은 군부 독재 시대에 설계돼 콘크리트로 미적 감각은 전혀 고려치 않은 건물들만 있는 데다 대체로 무채색의 우중충한 옷을 입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율화 이후 청소년 탈선이나 사복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빈부 격차로 인한 폐해 등등의 이유를 들어 점차 다시 교복으로 돌아갔다. 새로 시행된 교복 제도는 학교에 재량권을 두어 디자인을 다양하게 했다지만 그래도 교복이 교복이지, 가득이나 획일적으로 지어진 학교에 모두 같은 옷을 입기를 강요받은 아이들은 가치관이나 사고도 동일하기를 강요받고 통제된다. 게다가 교복의 가격이 비싼 곳은 수백만 원에 이른다니. 정해진 학교, 학생인 기간 외에는 입을 수도 없는 교복이 그렇게 비싸다니 그 무슨 사회적 낭비인가. 난 고등학교 다닐 때 입었던 청바지를 대

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에게 사회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찾아가라고 가르치다가 쫓겨나가는 선성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교복 입은 아이들이 책상 위에 서서 ‘O Captain, My Captain’을 외치던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다. 교복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어 학교를 포기하려는 아이나 교복에 억눌린 삶이 싫어 벗고 싶은 아이들의 선장이 되어 파란 하늘 아래 망망대해로 노를 저어 나아갔으면, 각자의 섬을 찾아서.

최재경 (국문 90) 동문의 미국 유학 생활기

영춘화 (迎春花) 필 때 당신도 저를 생각하시는지요?

H 선배님께,

선배님, 잘 지내셨는지요? 미세먼지와 꽃샘 추위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섣달처럼 피어난 영춘화를 보니 영춘화가 흔하게 피던 조지아가 생각납니다. 조지아에 살지 않았다라면 봄에 피는 노란 꽃은 모두 개나리인 줄로만 알았을 겁니다. 조지아에 살지 않았다라면 H 선배님을 비롯한 다양한 선배님들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영춘화 (迎春花)

작년 7월, 한국으로 들어오는 저의 부부에게 작별인사를 해주실 때에만 해도 저는 한 달 이내로 선배님께 편지를 보내리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넘기고 3월이 되어서야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선배님께 제 그리운 마음을 털어놓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선 선배님을 처음 만났던 날 받았던 인상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길에 올랐던 저의 부부는 생각보다 길어진 유학생활에 의지도 체력도 바닥이 나던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한인비영리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인터뷰 때문에 이민자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한국 어르신들을 찾던 중, 누군가의 소개로 서울대학교 조지아 지부 동창회의 송년회 파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연회장에 모인 선배님들은 반짝이는 드레스와 정장 차림으로 멋지게 와인 잔을 부딪치며 정답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감히 '선배님'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나이차 때문에 저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단 한 분에게도 "인터뷰를 해주시겠습니까?"라는 말씀도 여쭙지 못한 채, 비교적 젊은 선배님들의 테이블에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 같은 어른들'

두 번 째는 이듬해 가을 야유회였던 것 같은데, 아이복 차림으로 만난 선배님들은 오히려 다정하고 편안하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만 살아온 동년배 어른들에 비해 선배님들은 '대



최재경 (국문 90)

화가 통하는 어른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 오게 된 시대로 배경도 연유도 모두 다르지만, 선배님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자들의 강인함과 유연성이 보였다, 나이차가 있어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미국문화의 영향인지 한참 어린 저희들을 열린 마음으로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는 몇몇 선배님께서 근처 국립공원에 캠핑을 가는 데 같이 가겠다고 제안해주셨지요. 늙은 유학생이다 보니 유학생 사회에서는 어른 흉내만 내느라 피곤하던 차에, 일찌구나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숲 속 산장에서 저희를 '젊은이로 취급해주는 선배님들과 밤을 해먹고 함께 산길을 탐험하면서 그 동안 목말라 있었던 '윗사람의 위로와 평안'을 실컷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울대 선배님들답게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셔서, 잠시도 지루한 법이 없었습니다.



동문과 산길 탐험

그 후 몇몇 선배님 가족이 주축이 되어 '조지아 원정대'가 결성되었고, 저희는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텐트캠핑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체력이 좋은 선배님들을 따라 험한 등산로를 장시간 걷거나 딱딱한 텐트 바닥에서 자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매끼마다 해먹던 밥과 불고기와 김치찌개와 라면이라는 메뉴는 약간 세

"...저도 가능하면 미국에 계속 남아서 선배님들과 더 오래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나라에 나누어 있는 자의 삶을 한 나라에서만 평생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차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산속에서 맞던 일몰과 일출, 별이 가득한 밤하늘, 모닥불 앞에서 불장난을 하며 군고구마를 먹던 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저희에게는 더더욱 그리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유사 가족 공동체'

그토록 거리감이 느껴지던 서울대 동창회에 저희는 차츰차츰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좀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자 선배님들의 외로움과 슬픔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하기에 선배님들에게 동창회라는 '유사 가족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H 선배님께서 회장이 되신 후 저는 홍보 담당자 직책까지 맡게 되었고, 약간은 더 동창회에 기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은퇴한 후에 오히려 더 활발히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나와 타인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선배님들의 삶은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미국에 계속 남아서 선배님들과 더 오래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나라에 나누어 있는 자의 삶을 한 나라에서만 평생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

입니다. 동병상련. 그래서 더욱 선배님들은 가족도 아닌 저를 '후배'라는 이름으로 아껴 주셨던 것이지요.



캠핑장에서 맞은 일출

한국에 돌아와서 한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역시 이곳에서도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적응을 하고, 이제서야 꿈에서 깨어난 듯 '할 수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수업을 몇 개 맡아서 강의를 시작했고, 저는 1인 영상제작회사를 만들어서 'JK Choice Story'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친구들을 대상으로 쉬운 한국요리를 영어로 가르쳐주는 요리방송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다른 테마의 색선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JK Choice Story'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눈치채셨겠지만, 저의 관심은 여전히 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있고, 틈만 나면 미국을 오가며 선배님들을 만날 공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자 정신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유머'는 선배님들이 제게 가르쳐주신 삶의 태도입니다.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보이고 힘이 납니다. 늘 저희를 응원해주시듯이, 저도 선배님들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영춘화 지고 새하얀 배꽃이 피어나겠지요?



송별회



장운복 (공대 58)

<시인과 시 이야기>

밥 딜런 (Bob Dylan)

(1941~)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 본격적 인권 운동이 일어났고 1963년에는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 25만명이 모여 시위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킹 목사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한편 미국이 참전하게 된 베트남 전쟁은 끝

2016년 노벨 문학상은 대중 가요를 作詞 作曲하고 노래를 부르는 밥 딜런(Bob Dylan 1941-)에게 수여되었다. 소설가로는 카뮈나 헤밍웨이, 시인으로는 예이츠나 엘리엇과 같은 거장에게 수여하던 노벨 문학상을 대중 가요 가수가 받게 되자 '노래도 문학이나' 라는 논란으로 시골시골 해졌다. 딜런 자신도 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누군가가 내가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 가능성이 말에 서 있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데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달 위를 걷지 않았던가 암스트롱은 달에서 마음껏 걸고 나서 "한 인간에게는 조그만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잘 해보세요, 고르스키 남" (Good luck, Mr. Gorsky!) 이라고 중얼거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지만 빙그레 웃기만 하고 대답이 없었다. 미국과 경쟁 중이던 소련의 어느 우주인에게 한 말이었으리라 추측들을 했다. 몇 십년이 지난 후 드디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고르스키는 그가 어렸을 때 집 옆에 살던 분으로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어느날 동생하고 야구를 하다가 그 집 마당으로 떨어진 공을 좇으러 갔는데 고르스키의 부인이 방 안에서 "하자구요? 아니 재들이 창문 밖에서 놀고 있는데 하잔 말이요? 저 애가 달에서 걷게 되면 몰라도 안됩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스웨덴 한림원은 밥 딜런이 "미국 음악의 위대한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적인 표현을 창조했다" (He has created new poetic expressions within the great American song tradition)는 공적으로 명예의 노벨 문학상을 그에게 수여하였던 것이다. 알고 보면, 그의 노래는 오래 전부터 대학교 문학 강좌에서도, 권위있는 영시 選集(Anthology)에서도 취급되어 오고 있었다.

딜런이 대중 가요계에서 촉망을 받기 시작하던 1960년 대는 人權運動과 反戰運動 시위가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던 단란한 시대였다. 간단한 소개하자면:

1955년 어느 날 알라바마의 몽고메리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을 실은 버스에 백인 몇 명이 서있게 되었다. 운전수가 지정된 흑인 좌석에 앉아 있는 흑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42세의 흑인 로자 파크스(Rosa Parks)는 이를 거절하였고 경찰에 불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분개한 흑인들은 그 도시의 침례교 목사 킹(Martin Luther King Jr)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흑인의 인권을

Before you call him a man?
Yes, '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n' how many times must a cannon 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후렴)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네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네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산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서 있어야 바다로 씻겨갈 수 있을까?
사람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얼마나 여러 번 고개를 둘러야 보이지 않는 척 할 수 있을까?

How many years must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 are allowed to be free?



Dylan with Joan Baez during the civil rights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 August 28, 1963
From Wikipedia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n't see?
사람은 얼마나 여러 번 울려다 봐야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귀가 있어야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을까?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불어오는 바람 속에> 역자 미상
Blowin' in the Wind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보아야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이 바다 위를 날아보아야 백사장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가야 영원히 포탄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을까?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는 탄식이고, 제3절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수많은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전쟁이 계속됨을 비판하고 있다.

모든 절에서 세 질문은 脚韻으로 끝나고 있다. 제1절에서는 man, san(d), ban(ned), 제2절에서는 sea, free, see, 제3절에서는 sky, cry, die(d) 이니까 불완전 각운(slant rhyme)이다.

유명한 가수들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를 불렀다. 민권운동으로도 활발했던 조우언 바이에즈(Joan Baez)도 불렀다. 바이에즈는 딜런이 시골에서 뉴욕으로 처음 진출했을 때 벌써 민속 음악의 여왕이라고 불리웠는데 무명의 가수 딜런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 주었다. 동갑내기인 그들은 곧 연인의 사이가 되었지만 상상을 타기 시작한 딜런은 몇년이 못가서 바이에즈를 버리고 떠났다.

바이에즈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라는 마티니의 노래(Plaisir d'amour)를 부르며 상처를 달랬다. 십여년 후 어느날 밤에 뜻밖에도 딜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때를 회상하며 행복했던 때를 다이어먼드며, 헤어지면서 받은 상처를 녹여 비유하면서 <다이어먼드와 녹>을 자신이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다.



Dylan with Joan Baez during the civil rights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 August 28, 1963
From Wikipedia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n't see?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Now you're telling me
You're not nostalgic
Then give me another word for it
You who are so good with words
And at keeping things vague
Because I need some of that vagueness now
It's all come back too clearly
Yes I loved you dearly
And if you're offering me diamonds and rust
I've already paid

노래의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 감정의 표현이 어찌 논리적이거나 하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바이에즈는 30년이 지난 후 마지막 소절 '난 이미 그 값을 치렀어요(I've already paid)'를 '당신의 다이어먼드만 간직하겠어요(I'll only keep your diamonds)'로 바꾸어 불렀다.



강기동 (공대 53)

<독후감 정리>

日本 建國의 眞實

이글은 2003년에 미국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한인 시니어 교양 강좌로 준비한 것입니다. 日帝治下에서 皇國 神民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日本 天皇家의 祖上은 韓國사람이고 日本을 건국한 것도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現存하는 日本 古代 史書들은 “天皇家는 하늘에서 내려온 万世一系”라고 조작해서 韓國과의 血緣을 부정하고 日本이 古代로부터 韓半島를 지배한 것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歷史 歪曲은 近代에 와서 天皇室觀으로 再整理되어 오늘날의 敎課書의 歪曲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 한 모든 資料는 日本에서 出刊된 日本말로 쓰여진 책에서 수집된 것입니다.

1. 없어진 紀元節

저는 “紀元は 2600年”이라는 노래도 배웠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당연히 그 生日도 있어야하는데, 2월 11일이었던 日本의 紀元節은 해방이 되자 없어졌습니다. 알고보니 2월 11일은 日本皇室에서 韓神祭라고 하여 한국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없앨 수도 없고 날짜를 바꾸자니 國民에게 설명하기도 힘들어 고민 중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美 占領軍의 지시라고 하고 아예 폐지해 버렸습니다. 사전에서 韓神祭와 2월 11일의 연관을 차단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國民은 紀元節의 부활을 요구했고 20년이 지난 1967년에 新武天皇 即位日を 알 수 없는 계산법을 내세워 일명동양 2월 11일이라고 建國記念日로 再活했습니다. 한동안 生日없는 日本이었습니다. 이 初代 新武天皇도 조작되었다고 알려졌지만 万一 實存 人物이라면 경상도 지방에서 건너간 王族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2. 萬葉集과 大和言葉 (ヤマトコトバ)

萬葉集은 現存하는 日本文學의 最古 詩歌(和歌)集으로 西紀 7世紀를 前後하여 모은 作品 4,500首를 20卷에 채운 日本 國寶입니다. 百濟 8代 古爾王(234~286)이 王仁을 시켜서 日本에 千字文을 전한 것이 日本文學의 시작으로 漢字의 音과 訓을 利用하여 옮겨져 있는 아주 貴重한 日本의 文學作品입니다. 그러나 그 解讀이 1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이를 연구하는 萬葉學이 생기고 많은 學者들이 卞을 바치며 그 解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한국의 女流作家 李季熙 氏가 “もう一つの萬葉集”이라는 책을 文藝春秋社에서 出刊하면서 萬葉集을 해독하자 全日本이 놀랐습니다. 解讀보다 더 日本인들

3. 日本正史 – 古代史의 現住所

우리의 古代史書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있듯이 日本은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서기 712년과 720년에 특정위정자의 지시로 만들어진 史料입니다. 日本 天皇家가 韓半島에서 왔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日本 皇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神武天皇으로부터 시작된 万世一系の 족보를 만들고 古代로부터 韓半島를 지배해 왔다는 것을 글자로 해서 만든 史書들입니다. 예를 들면 韓半島 南部에 任那日本府를 두어 韓半島를 지배했고, 백제왕이 日本王에게 하사한 것을 조공을 바친 것으로 고치고 한국에서 간 사절단은 모두 人質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그많은 移住民을 모두 歸化人이라고 했습니다. 日本 正史로 인정되어 있는 이 日本書紀는 제가 알기로는 天皇의 万世一系の 족보를 그당시의 占術에 맞추어 미리 짜놓고 여기에 史實, 事實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자리가 많이 나서 史實을 쫓고 또 중복되는 곳은 이를 年代 등을 고쳐

大和(ヤマト)라고 하면 大和魂(ヤマトタマシイ)이 생각납니다. 日本 軍人の 基本精神입니다. 太平洋 戰爭 未에 神風特攻隊 즉 自殺 폭탄 비행기가 이를 대표하니



“...2월 11일이었던 日本의 紀元節은 해방이 되자 없어졌습니다.

알고보니 2월 11일은 日本皇室에서 韓神祭라고 하여 한국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없앨 수도 없고 날짜를 바꾸자니 國民에게 설명하기도 힘들어 고민 중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 大和는 원래 古代國家 “山跡”, “邪馬台” 등의 이름을 가진 小國들을 모두 총칭해서 大和라고 쓴 것입니다. 오늘날 大和言葉은 日本 사람들에게는 日本 固有의 진정한 日本말을 意味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事實은 이 大和地方에 살던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移住한 사람들로 古代 경상도 말인 것입니다. 제가 배운 日本 軍歌에 “さらば祖國よ榮えあれ”라는 句節이 있습니다. 여기 “さらば(사라바)는 古代 한국말로 “살아서 다시보자”는 이별사로 오늘날 日本말이 되어 “サヨナラ(사요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뉴욕에 계시는 朴炳植 氏는 1988년에 “日本語의 成立証明”이라는 책을 出刊하여 日本말의 뿌리가 한국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과거에 日本 教育을 받은 한국인들이 한국말을 모르면 不可能한 日本말, 日本 歷史의 眞實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大和라는 國號는 신라의 善德女王에 이어 眞德女王이 王이 되면서 年號를 大和라고 했습니다. 이때 實權을 잡고있던 金春秋는 高玄玄理를 데리고 日本으로 가서 당시 친신라 日本 天皇에게 國號를 大和로 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 새로운 史實로 만들었습니다. 占術에서 좋은 날만 골라 맞추다 보니 天皇의 나이가 100살 이상 되어버렸습니다. 1代 神武天皇 127세, 5代 考昭天皇 114세, 6代 考安天皇 137세, 11代 垂仁天皇 141세, 12代 景行天皇 143세 등이 古代天皇의 나이입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人物과 年代를 제대로 대조하면 史實이 정확히 재생된다고 합니다. 明治時代に 와서 日本史는 皇國史觀으로 再定立하여 軍閥政治의 기반을 조성하고 韓日合併을 正當化하는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심지어 日帝時代に 日本軍을 시켜서 만주에 있는 高구려의 好太王(廣開土大王)碑의 글짜를 고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日本의 歷史를 바로 잡을 수 있는 位置에 있는 元老學者나 政治家일수록 史實 歪曲은 日本을 위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史實이 나와도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의 說이라고 덮어버리기가 일수입니다. 어느 學者의 말로는 어느 한 부분만 고치려다 보면 다른 部分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 소뿔을 잡으려다 소머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史實 추구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天皇家의 古墳탐색입니다. 현재로서는 天皇室에 손대는 것은 Taboo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天皇家의 祖上이 韓半島에서 왔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日本의 많은 지식층은 天皇家나 자기자신의 祖上도 韓半島에서 到來한 移住民이라는 것을 알거나 집착은 하나 大多數 國民의 정서는 아직 이런 史實을 받아들이 수 없어서 일부러 나서서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여기서 國民教育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됩니다. 나라의 교육이 오랜세월을 두고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가르키면 나라 국민은 사슴을 말로 알게 됩니다.

4. 日本 建國

솔직히 말해서 日本사람들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 日本 建國입니다. 미국같이 독립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어디서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닙니다. 日本이란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 잘 모릅니다. 한국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 一部 日本學者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古代 한국인의 日本 移住

日本의 原住民은 小數이기는 하지만 北方系의 아이누족과 남방계의 폴리네시아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세차례의 큰 移住가 있었습니다.

1차

西紀 元年 前後에서 3世紀 – 部族國家, 辰韓, 馬韓, 弁韓 등의 잦은 충돌을 피해 많은 遊戰民과 亡命民이 日本 땅을 찾았습니다. 釜山地域에서 日本땅이 보이는 것도 移住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당시는 外國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없이 건너 갔습니다. 이들은 製鐵기술을 가진 集團이나 部族이었습니다.

2차

4~5世紀 – 韓半島內의 三國과 가야는 끊임이 없는 전쟁으로 많은 遊戰民이 바다를 건너갔고 특히 全羅道 地方의 百濟에서는 그 數가 다른 부족보다 많아서 上流層의 왕래도 많았습니다. 王仁 博士가 千字文을 전하고 불교, 건축기술들이 日本으로 옮겨지면서 百濟의 分國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新羅에서 간 物部씨가 세력을 잡고 있었으나 百濟系에 밀려 百濟王族 木滿致의 자손 소가씨(蘇我氏)가 絕對權力을 장악하고 大和倭國이 번창하여 飛鳥地方에 百濟寺, 百濟宮 등 많은 建築物를 지었으며 百濟 25代의 武寧王은 日本에서 出生하여 본국의 부름으로 歸國하여 王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史實은 1971년 충남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王陵 발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日本으로 건너온 百濟武王妃이고 義慈王의 누이 寶皇女는 두 번 千皇이 되었습니다. 皇極과 齊明天皇입니다.

3차

百濟에 위기가 오자 皇極天皇은 母國을



박준창 (인문 79)

영화 이야기

- Bridge of Spies -

오늘은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벨기에 영화 하나. 벨기에는 네덜란드 어권 (인구의 60% 정도) 과 프랑스어 권 (40%)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영화는 네덜란드어로 제작되었다. 영어나 원어 제목은 평범하다. 영어 제목은 “살인자의 기억”인데 영어 제목만 보면 한 살인자가 회상하는 것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갖게하는데 memory가 뜻하는 것이 회상이 아니다.

원어 제목은 “De Zaak Alzheimer”인데 영어 번역은 “The Alzheimer Case”란다. 원어와 영어 제목을 함께 보면 치매를 앓고 있는 한 살인청부업자의 이야기인 것으로 짐작이 간다. 살인청부업자가 치매라니 관객들에게는 우스운 일인데 본인에게는 심각하다. 치매가 있으니 살인청부업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 직업 살인자는, 치매약을 복용해가며, 그의 희생자의 인적 사항이나 살인 사주자 연락 정보를 팔뜩에 쓰고 다녀야 한다. 주인공 Angelo Ledda는 이미 은발의 노인으로 거의 은퇴 상태

인데 2건의 일이 들어온다. 살인 청부업자에게 은퇴란 없다며, 두 사람을 죽이고 첫번째 희생자에게서는 어떤 함(package)을 빼앗아 오는 것이 그 일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또 다른 살인청부업자를 다룬 Michael Mann 감독의 영화 Collateral의 주인공 역의 Tom Cruise와 좋은 비교가 된다. Collateral의 Tom Cruise는 희생자와 살인 사주자의 정보가 담긴 랩탑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자기를 데리고 다닐 택시 운전수를 일당으로 고용하고, 인물도 좋은 chic, cool, elegant한 젊은 매력남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늙고 잘 생기지도 못했고 세련되지도 않았다. 단, 어린애는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저지르는 살인 이외의 불의에는 분노할 줄도 안다는 점에서 냉혈한인 Tom Cruise와는 다르다.

영화는 이 영화의 또다른 주인공 형사반장 Eric Vendke가, 어린 딸에게 야동 매춘을 시키는 패륜 악랄한 아버지 집에 손님으

로 가장,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게 어떻게 살인 청부업자와 연결이 되는지 의아한데, 12살밖에 안된 이 딸이 바로 Ledda가 죽여야 하는 2번째 희생자다. Ledda의 첫번째 희생자는 Antwerp 시의 도시계획 책임자로 자신의 집에서 살해되고, 매장된다. Ledda는 물론 함도 입수한다. 그리고 Ledda는 두번째 목표를 찾아가 총을 겨누는데 순간 희생자가 표를 돌리는데 보니 어린 소녀다.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자신은 소녀를 죽이는 일은 않겠다고 살인 요청을 전달하는 중간업자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결국 소녀는 다른 청부업자에게 살해당하고 이 청부업자는 Ledda의 목숨마저 노리다가 오히려 Ledda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 청부업자가 바로 그들에겐 은퇴가 없으며 일을 증개해 주었던 그 사람 (참 더러운 직업세계다). Ledda와 하루밤을 함께한 창녀만 그 와중에서 실수로 죽이고, Ledda는 죽은 살인청부업자를 자신으로 둔갑시켜 현장에서 태연히 형사반장 Vendke에게 몇 시간전 만난 사람이라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日本 固有의 말이라고 믿고 있던 大和言葉이 古代 慶尚道の方言인 것 처럼 大和民族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역시 韓半島에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日本에 사는 金達壽 氏는 韓半島 移住民의 遺跡을 찾아 紀行文 形式으로 글을 정리해서 “日本の中の朝鮮文化”라는 책을 여러권 講談社를 통해서 出刊시켰습니다. 아주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여기서 高麗神寺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기 716년에 高句麗에서 移民 1,799人を 모아 그당시는 황무지였던 遼藏國에 移住시키고 이곳을 高麗郡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여기에 高麗神寺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 神寺의 社住僧 관리자가 59代 高麗澄雄 氏입니다. 1259년 29대에 와서 高麗家의 系圖(族譜)가 모두 燒失되었습니다. 이때 家系圖 再編을 위해서 모인 分家 代表들의 姓氏가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高麗(本家), 高麗井, 駒井, 井上, 新, 新田, 新井, 丹登, 岡上, 本所, 和田, 吉川, 大筋, 加藤, 福泉, 小谷野, 阿部, 金子, 中山, 武藤, 芝不이라고 합니다.

5. 日本 全國에 널려있는 韓半島 移住民의 遺跡

日本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이 絶對多數의 外部 移住者가 만든 나라입니다. 다만 그時期가 이들보다 1,000년이나 앞서 있는 것입니다. 韓半島에서 간 移住民의 遺跡은 百濟, 新羅(白土, 白城, 白髮 등), 高麗(句를 빼고 있음)의 이름이 들어간 神寺나 寺刹만해도 韓半島에서 가까운 九州지방, 이들의 定着地인 飛鳥地方을 위시하여 全國에 널려 있습니다. 日本의 도시 “奈良”(나라)는 한국말에서 온 Country, Nation이라는 뜻입니다. 이 많은 遺跡들에 대해서 아직도 一部 史學者들 “日本書紀”적인 視角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大和民族이 原住民으로 모든 移住民은 日本 歸化人이고 이들이 大陸文化(韓半島가 아닌 中國)를 전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다. 형사반장은 이제 4건의 살인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왜 도시 계획 책임자와 어린 창녀, 다른 창녀, 그리고 장년의 남자가 연쇄적으로 죽었는지 이들 사건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집을 경찰은 추적을 하는데 과연 연관성은 무엇일까? Ledda는 사건 전모를 파악한다. 그리고, 어린 창녀의 죽음에 분노한다. 그는 스스로 정의를 행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형사반장에게 통보한다. 경찰이 항상 자기보다 늦다며, 두 사람은 반대편이지만 악을 제거하는데 있어 서로 교감하는 면이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영화는 끝나지 않고 반전을 거듭하며 마지막까지 관객들이 자리를 뜰 수 없게 만든다. 재미있는 영화다. 전문 살인 청부업자가 치매라는 설정이 재미있고, 전체적으로 영화가 짜임새가 있다 (어쩐지 짜임새가 있다 했더니 역시 동명의 소설이 원전). 청부 살인이라는 사악함과 자신의 버리를 덮기 위한 살인 청부와 협박이라는 사악함의 혼재. 그 와중에서 아무 잘못없이 임무 수행하다가 희생당하는 경찰들의 원혼은 어떻게 달래야 하는 것인지? 배운 계층, 가진 계층의 추악함이 그 정도 응징으로 되는 것인지? 영화는 이런 불편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어쨌든 2시간 잘 즐기고 한편 잘 졌다는 느낌을 주는 영화. 프랑스 영화같은 주류 유럽 영화가 아니라서 기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보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도 못하고 그저 쳐다만 보는 가련한 신세가 될 것이 뻔합니다.

日本正史가 올바르게 될려면 우선 皇國史觀을 가지고 있는 元老들이 은퇴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對韓 優越의식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日本天皇家는 지금까지 숨겨둔 “우리조상은 한국인”을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絶對不可의 天皇古墳 探索을 허용하고 史實추구에 적극협력하여야 합니다. 더 힘든 것은 一般 日本人의 의식이 韓國系 天皇을 순수히 받아들이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日本인의 대부분이 오랜세월 歪曲된 歷史教育을 받아서 韓國을 보는 視角이 古代에는 任那日本府를 南韓에 두어 韓半島를 支配했고, 中世에 와서는 豊臣秀吉(1536~1598)의 朝鮮征伐, 近代에 와서는 韓國을 合併하여 大日本帝國을 세워 비록 美國에 太平洋戰爭에 저서 항복했지만 한때는 大東亞共榮圈을 만든다고 東亞細亞의 大部分을 支配했던 過去가 자랑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많은 韓國系의 演藝人들이 日本으로 歸化한 韓國人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現實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전에 日本正史가 제대로 정리된다는 기대는 거의 不可能합니다. 그러나 祖上이 옛날에 日本으로 건너가서 오늘의 日本이 생겨났다는 史實만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글을 정리했습니다.

Reno Nevada에서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99호 2019년 3월 호	
---------------	-------------------	--------------------------	---------------



최은관 (상대 64)

르네상스 시대 대가들은 얼마나 벌었는가

2.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르네상스 시대에 누구보다도 돈을 제일 많이 번 예술가는 미켈란젤로였을 것이다. 그는 13살에 1488년에 기를란다ियो의 도제로 일하면서 1년에 6플로린을 받았다. 메디치가의 수장이었던 코지모(Cosimo II Vecchio)는 두 손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렌조 마니피코요 (위대하다는 뜻), 다른 하나는 줄리아노였다. 줄리아노는 경쟁 가문의 공격을 받아 살해당했고 로렌조는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미켈란젤로는 어릴 때부터 5년 동안이나, 이 메디치가에서 로렌조 마니피코와 함께 식사하며 자랐다.

미켈란젤로는 다윗의 彫像을 3년 동안에 마치고, 그 대가로 400플로린을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0,000에 달한다. 당시에 조각가로서 독보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좋은 임금을 받았던 것 같다. 메디치가에서 로렌조의 아들 조반니가 교황 레오 10세가 되고, 또한 암살되었던 줄리아노의 아들 줄리오가 교황 클레멘트 7세가 되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교황청의 후원을 받아 큰 그림과 대공사를 하청받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시스틴 성당 천장의 그림을 4년 동안(1508-12년) 그린 것으로 미켈란젤로는 3000 닥킷을 받았는데, 이것은 연봉 750 닥킷이요, 오늘날 \$112,000가 된다. 바티칸 궁전의 건축가이자 화가로 임명되어, 미켈란젤로는 한 달에 100 플로린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당대의 화가 티티안(Tiziano)이 교황청에서 받은 연봉이었다. 교황청과 연줄이 닿지 않은 대가들의 연봉은 100에서 200 플로린이었고, 이들은 그림을 그려 평민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임종할 때 그의 침대 옆의 서랍장에는 금화들이 잔뜩 (30킬로그램, \$1,300,000) 들어있었다고 한다. 미켈란젤로가 자르고버였다는 소문도 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 당시에 처녀들이 결혼하려면 자침금이 필요했는데, 바사리에 따르면 미켈란젤로는 수많은 처녀들이 결혼하도록 남모름도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에게 오랫동안 시중들던 하인이 그가 죽으면 다른 이를 위하여 일하려 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하인에게 1천 플로린을 주었다고 한다. 죽을 때 그의 재산은 5만 플로린(약 \$7,500,000)이었다고 한다.

3. 레오나르도 다 빈치

레오나르도는 1452년에 피렌체에 속하는 빈치(Vinci)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 피에로와 어머니 카테리나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다섯 살까지는 어머니와 살았지만, 소년이 되자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가서 길렀다. 아들의 그림 솜씨를 보고서 아버지

는 당대의 대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Andrea del Verrocchio) 밑에서 그림을 배우라고 그를 맡겼다. 레오나르도는 그의 공방에서 그림을 10년간 (1466-76년) 배웠다. 당시에는 선생이 초안을 잡고 그림을 그리지만, 때로는 수제자들이 일부를 그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예수의 세례라는 그림을 선생이 주문받았는데,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동안 그의 옷을 들고 있는 한 천사의 그림을 그렸다. 레오나르도의 솜씨가 너무 훌륭해서 그 이후로 선생은 다시 붓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

1472년에 레오나르도는 은으로 리라(myre)라는 현악기를 만들었고, 로렌조 마니피코는 그를 밀라노의 로도비코 스포르자 공작에게 보냈다. 밀라노에 머무르면서, 한 수녀원의 식당 벽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1495-98년에 그렸다. 그는 1년에 500 닥킷을 받았고, 4년이 걸렸으니, 아마도 총합 2000닥킷(약 \$300,000)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그림의 크기로 따지면,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예배당 벽화를 그리느라고 받은 것보다 훨씬 높은 값이었다. 프랑스의 루이 왕이 1499년에 밀라노를 침공했을 때, 이 프레스코(벽화)를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엔지니어들이 그림을 떼갈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였다. 1513년 10월에 레오나르도는 로마에서 메디치가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고 1516년 여름에 로마를 떠났는데, 이때 레오나르도는 1년에 400 닥킷을 받았다.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의 "Notes"에는 1493년 7월 16일에, 카테리나가 왔다고 적혀 있다. 이 여인은 밀라노에 있는 레오나르도의 집에서 2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의 세금 기록에는 카테리나가 부양 가족으로 되어 있다. 레오나르도가 장례식에 상당한 돈을 쓴 것으로 보아, 카테리나는 그의 어머니였던 듯하다.

레오나르도는 어머니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을 이렇게 적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카테리나의 장례에 들어간 돈. 27 플로린
밀랍 2 파운드, 18 플로린 (관 위에 놓인 彫像을 만드는 데 쓴 뜻)
장식된 관罩, 12 플로린
상지기를 운반하고 관에 놓은 것, 4 플로린
관을 지고 간 사람, 8 플로린
사제 4명과 조수 4명, 20 플로린
총 울리는 것, 2 플로린
무덤을 파는 자, 16 플로린
(매장) 허가 비용, 1 플로린
합계 108 플로린
이전에 지불한 돈
의사, 4 플로린
설탕과 양초, 12 플로린
총합, 124 플로린

레오나르도가 1년의 봉급에 해당하는 비

율을 부담하고, 사제 4명에게 장례식을 거행하게 한 것으로 보아, 카테리나가 레오나르도에게 시중드는 하녀가 아니라 어머니였을 것이라 짐작하게 된다. 밀라노 정부의 기록소에는 카테리나가 1494년 6월 26일에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레오나르도는 밀라노의 루도비코 스포르자 공작으로부터 포르타 베르첼리나에 있는 한 포도원을 받게 되었는데, 카테리나가 거거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으니, 카테리나가 그의 어머니였던 것이 분명하다. 모나리자를 제외하고 다른 그림들은 돈을 받고서 그렸다. 모나리자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있다.

1516년, 나이가 지긋한 레오나르도는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아, 이 프랑스 임금이 마련해준 양부아주 지역에서 살았고 연봉은 400닥킷이었다. 제자였던 프란체스코 멜지가 그림들을 물려받았으나, 모나리자는 프랑스 임금에게 넘어갔고,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4. 갈릴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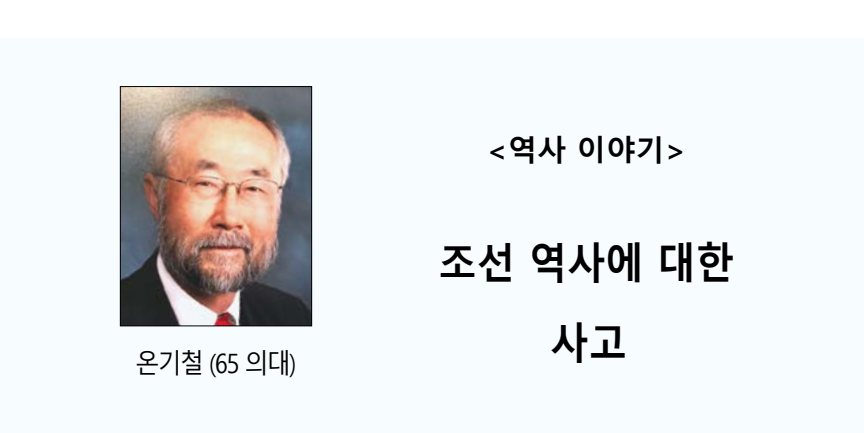
갈릴레오는 르네상스 말기에 1564년 2월에 피사에서 태어났다. 과학적 관찰을 중시했기 때문에 흔히 그를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1589년에 피사 대학에서 그의 수학 선생이었던 판토니(Fantoni)가 자리를 비우게 되자, 갈릴레오는 그 자리에 3년 동안 임명되었고, 그의 연봉은 60플로린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 \$4,500 정도이다. 당시에 교수들은 예복을 입어야 했는데, 갈릴레오는 예복을 입지 않아 벌금을 물었다. 3년이 지난 뒤에,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1592년에 다행히도, 파두아 대학은 교수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갈릴레오에게 피사 대학보다 3배(180 플로린)나 되는 연봉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장 그는 이를 받아들였고, 다음 18년 동안 (1592-1610년) 파두아 대학에서 일했다. 갈릴레오는 정열적인 강의로 이름을 날렸다. 이 기간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대였다고 한다.

마리나 감바라는 여인을 만나서 두 딸과 한 아들을 낳았지만, 갈릴레오는 이들을 자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봉급이 3배나 올랐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서, 갈릴레오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부양해야 했다. 여동생의 지침금 지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체포당할 뻔하였다. 갈릴레오는 큰 집에서 감바와 살면서, 흔히 10명이나 되는 하숙생을 치면서 살림을 꾸려나갔고, 이들은 1000 닥킷이나 넘지만 비용이 적지 않았다. 1598년에는 군사용 나침반을 발명하여, 그의 연봉은 520플로린(\$78,000)으로 늘어났다. 하숙생과 개인 교수와 도구를 만들어 팔면서 얻은 소득은 학교에서 받은 돈의3배가 되었다. 1610년이 되어서 그는 친구 크레모니니에게 400닥킷이나 돈을 빌려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1609년에는 플란더스인이 3배 망원경을 가지고 베니스에 나타났는데, 그는 베니스 상원에 이 망원경을 1000플로린에 팔겠다고 제안하였다. 갈릴레오는 유리알을 가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몇 달만에 8배짜리 망원경을 만들어서, 베니스의 총독에게 보여주



온기철 (65 외대)

일본 역사는 시대에 따라 다른 색깔의 옷을 갈아입는다. 그러나 몸통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바뀌는 정부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옷을 역사라는 몸통에 갈아 입힌다. 요즘은 내가 책,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얻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것들과 많이 다른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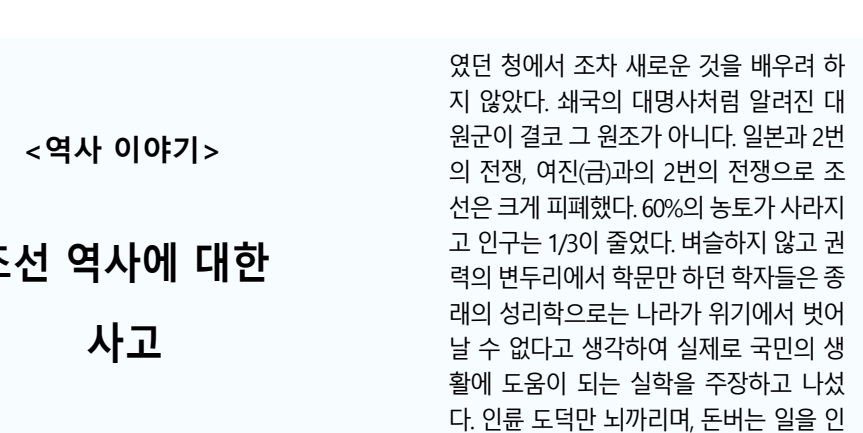
“사대교린”은 조선외교 정책의 근본이었다. 큰 나라인 명을 섬기고 명은 조선을 돌보며 작은 나라인 일본과 여진과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평화를 유지하지는 것이었다. 조선이 명의 보호국임을 자칭하고 그랬가로 통상, 외교, 국방을 명에게 맡기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교린국이 강하거나 사대국이 약해질 때는 조선은 커다란 고난을 겪었다. 결국 사대국인 청이 약해지고 교린국인 일본이 강해지자 조선은 멸망했다. 나라의 안위를 외국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장난인가를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건국 이후 약 200년 동안 명나라와 중중 관계를 잘 유지하며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다. 일본이 약하고 명이 강한 구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명을 믿고 국방을 소홀이 했다. 일본을 통일 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든 일본은 조선을 침략 했다. 중국을 칠 터이니 조선은 일본에게 길을 내주어 한다고 주장 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훈련도 없이 농사만 짓던 농부로 구성된 조선군은 일본군의 조총소리 만 들어도 도망쳤다. 신립 장군은 이들을 싸우게 해야 했다. 배수진이 상책이었다. 병사들과 장렬하게 전사한 그가 불상하기만 하다. 선조는 경복궁을 뒤로 하고 출행량을 쳤다. 백성들은 완전히 무시한채 신하와 궁녀만 데리고 말이다. 그리고 명에 원군을 청했다. 평양에서 선조는 명의 원군을 맞이 한다. 구세주가 나타나 격이다. 그리고 명군 장수가 모든 작전권을 명군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이익의 감바와 살면서, 흔히 10명이나 되는 하숙생을 치면서 살림을 꾸려나갔고, 이들은 1000 닥킷이나 넘지만 비용이 적지 않았다. 1598년에는 군사용 나침반을 발명하여, 그의 연봉은 520플로린(\$78,000)으로 늘어났다. 하숙생과 개인 교수와 도구를 만들어 팔면서 얻은 소득은 학교에서 받은 돈의3배가 되었다. 1610년이 되어서 그는 친구 크레모니니에게 400닥킷이나 돈을 빌려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그후, 겐으로는 청나라를 섬기기로 했으나 권력층은 명나라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소위 소중화론이 등장한다. 명나라는 망했지만 조선이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고 고집했다. 명은 중화이고 조선은 소중화라고했다. 명은 일등국가, 조선은 2등국가이고 여진, 일본은 3등국가 라고 빼기다가 일본, 여진(청)에게 큰 곡을 당하고도 명과의 의리를 찾고 있는 어리석음은 기가차할 노릇이다. 조선의 영원한 보수 세력, 노론이 주장했던 원칙론이다. 이래서 3등국가인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걸는 대전에서 라디오로 자기가 서울에 있다고 방송한다.

었다. 베니스는 당장에 그의 연봉을 1000닥킷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이 제안을 물리치고, 피렌체의 메디치 궁정으로 갔다.

1610년에 이르러 갈릴레오는 20배 망원경을 만들었다. 피렌체의 메디치가에서 궁정의 과학자로 초빙받은 뒤에 세 자녀를 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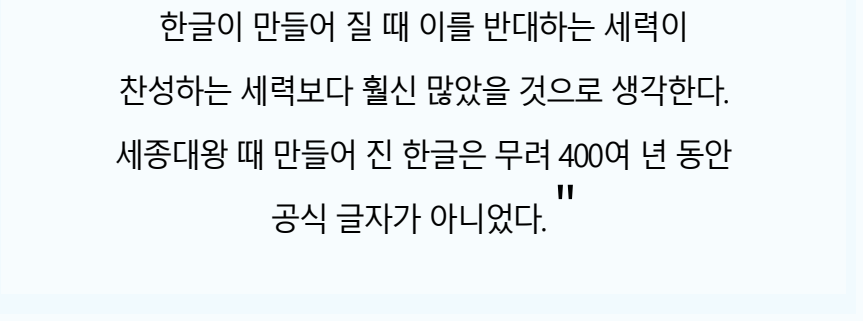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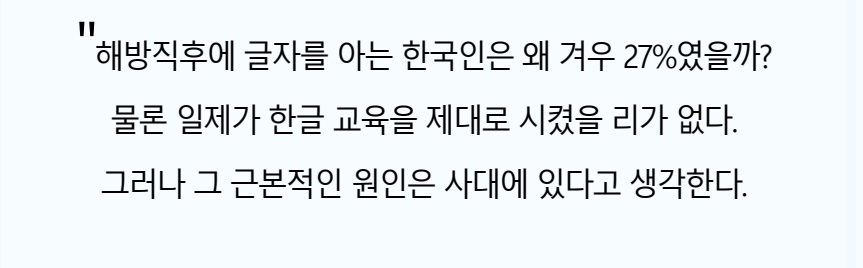


고 갔으며, 메디치가의 어린 자제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메디치가에서 새로운 발명은 이 궁정에서 처음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조건 외에, 갈릴레오에게 별다른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갈릴레오는 많은 시간을 연구에 바칠 수 있었다. 파두아에서는 후원자들이 많았고 이

었던 청에서 조차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책국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대원군이 결코 그 원조가 아니다. 일본과 2번의 전쟁, 여진(금)과의 2번의 전쟁으로 조선은 크게 피해를했다. 60%의 농토가 사라지고 인구는 1/3이 줄었다. 벼슬하지 않고 권력의 번두리에서 학문만 하던 학자들은 종래의 성리학으로는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실재로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륜 도덕만 뉘끼리며, 돈버는 일을 인륜에 벗어난다고 천시했던 것이 성리학이다. 사농공상이라 하여 상인과 장인(기술자)을 무시했다.

전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양반은 조선의 지배계급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30~50%가 노비였다. 나머지 다 상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었다. 노비는 양반의 재산목적이었고 미국의 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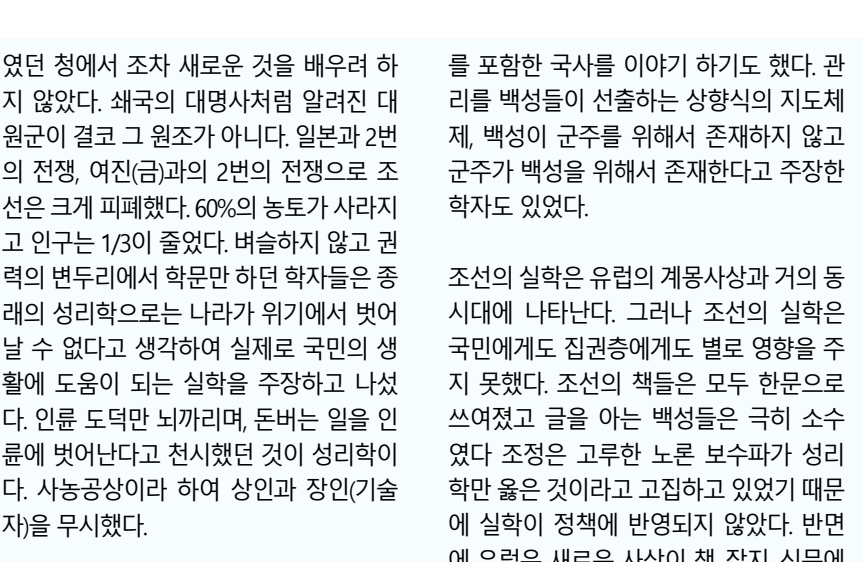


서 조선을 침략했다. 그러나 조선은 친명파와 친청파로 갈라져서 싸우기만 했지, 금나라의 침입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남한산성의 비극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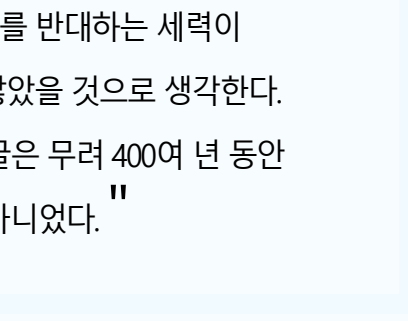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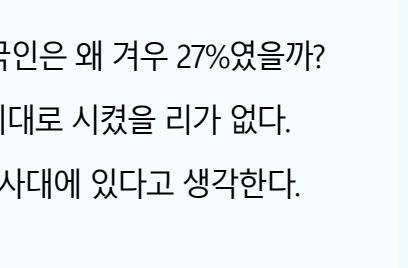
그후, 겐으로는 청나라를 섬기기로 했으나 권력층은 명나라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소위 소중화론이 등장한다. 명나라는 망했지만 조선이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고 고집했다. 명은 중화이고 조선은 소중화라고했다. 명은 일등국가, 조선은 2등국가이고 여진, 일본은 3등국가 라고 빼기다가 일본, 여진(청)에게 큰 곡을 당하고도 명과의 의리를 찾고 있는 어리석음은 기가차할 노릇이다. 조선의 영원한 보수 세력, 노론이 주장했던 원칙론이다. 이래서 3등국가인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걸는 대전에서 라디오로 자기가 서울에 있다고 방송한다.

었다. 베니스는 당장에 그의 연봉을 1000닥킷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이 제안을 물리치고, 피렌체의 메디치 궁정으로 갔다.

1610년에 이르러 갈릴레오는 20배 망원경을 만들었다. 피렌체의 메디치가에서 궁정의 과학자로 초빙받은 뒤에 세 자녀를 데리



고 갔으며, 메디치가의 어린 자제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노예처럼 사고 팔았다. 그들의 인권은 주인 마음대로 었다. 양반이 소유하고 있는 농토는 노비가 경작하거나 소작인이 일구하지 않고 있다가 남한산성의 비극을 연출한다.

조선후기 조선의 교육은 한문으로 된 인륜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상민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었다. 양반만이 응시할 수 있는 과거시험 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 끝나면 취업기회라고는 관리가 되는 것 밖에는 없었다. 실학자들은 토지는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노비제도를 점차적으로 없애자고 했다. 과거제도 폐지와 8세 이상의 모든 백성에게 교육을 시키자고 했다. 상공업을 육성해야 국민이 잘살게 된다고 했다. 소비해야 생산이 증가 한다는 자본주의 원리를 간파한 학자도 있었다. 신라 중심의 국사를 버리고 발해와 신라를 아우르는 만주

들이 그의 연봉을 매년 올려주었지만, 또한 이들의 가족 행사나 여행에 얼굴을 비치거나 따라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돈 보다도 시간 여유가 피렌체로 가게 된 이유였다.

갈릴레오는 드디어 1632년에 Dialogue concerning the two Chief World Systems 라는

를 포함한 국사를 이야기 하기도 했다. 관리를 백성들이 선출하는 상향식의 지도체제, 백성이 군주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다.

조선의 실학은 유럽의 계몽사상과 거의 동시대에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의 실학은 국민에게도 집권층에게도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조선의 책들은 모두 한문으로 쓰여졌고 글을 아는 백성들은 극히 소수였다. 조정은 고루한 노론 보수파가 성리학만 옳은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학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에 유럽은 새로운 사상이 책, 잡지, 신문에 인쇄되어 국민을 계몽시켰다. 그리고 근대 국가를 만들어 내고 제국주의를 발전시킨다. 조선은 정조대왕이 부분적이나마 실학을 정책에 반영하여 개혁을 하는 중에 사망 한다. 그리고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조선은 실학을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광화문 앞 세종로에는 황금 빛의 세종대왕 동상이 있다.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해방직후에 글자를 아는 한국인은 왜 겨우 27%였을까? 물론 일제가 한글 교육을 제대로 시켰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글이 만들어 질 때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찬성하는 세력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종대왕 때 만들어 진 한글은 무려 400여 년 동안 공식 글자가 아니었다. 조선은 한문을 공식글자로 썼다. 아니 중국어를 조선의 공식글자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록하지 않고 중국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글이 나온 후에 한문을 주로 써도 충분히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도 하지 않았다. 대한제국 선포 후해야 한글은 한국의 공식글자가 된다. 한국사람들은 금속활자를 쿤텐베르크 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문은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프린팅하려면 나무에 글자를 파서 하는 것보다 불편하다. 그러나 28자만 만들면 되는 한글을 사용하면 수만자중에서 골라야 하는 한문 보다 천배만배 편리하다. 한문사용 때문에 금속활자는 박물관으로 사라졌다. 반면에 알파벳을 쓰는 서양에서는 성경을 찍어내어 종교개혁의 이앙어지고 계몽시대에 출판이 발달하여 국민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실학, 한글, 금속활자를 버린 조선은 세도정치를 거치면서 급속히 쇠약해 졌다. 과거제도 폐지와 8세 이상의 모든 백성에게 교육을 시키자고 했다. 상공업을 육성해야 국민이 잘살게 된다고 했다. 소비해야 생산이 증가 한다는 자본주의 원리를 간파한 학자도 있었다. 신라 중심의 국사를 버리고 발해와 신라를 아우르는 만주

책을 출판하여 메디치가에 바쳤다. 그러나 이 책은 카톨릭 교회에서 금서 목록에 올라갔고(1835년까지), 갈릴레오는 곧 교황청의 호출을 받아 1635년에 로마에 도착했다. 정치적 이유로 메디치가의 경제적 후원도 끊어졌고 갈릴레오는 자택에서 연금되어 살다가 죽었다.

>> P 22 계속

회칙 위원회 2018-19년 회기 3/4 분기 보고



조화연 (음대 64)

본 위원회 이번 회기의 3/4 분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4차로 계획된 이메일을 통한 정기 회의 중 제3차 회의를 지난 2월 19일에 마쳤습니다. 한 일은 지난 2차 회의의 미결 사항이었던 조정현 (수의대 58) 위원께서 초안

한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세칙의 영역 본 신의를 완성한 것과 전 미주동창회 영문 회칙의 원본에 지금까지의 19개 Amendments를 더하여 개정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정본을 만든 방법은 영문 회칙 원본에 별도의 Amendments Page를 attach한 후 필요시에 add 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칙의 main page들을 두 column으로 나누어 영문 회칙 원본을 왼쪽 column에 싣고 매 변경된 사항의 바로 옆 오른쪽 column에 해당 amendment를 기록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main part와 첨부된 amendment page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게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우리 말 회칙 초창기 원본에 19개의 개정 사항을 포함시켜

수정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병연 (공대 58) 위원께서 사용한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회칙 원본을 왼쪽 page에 그리고 해당되는 amendments를 건너편 오른쪽 page에 적어왔습니다. 컴퓨터 Word Processor가 발달된 오늘날에는 김병연 위원께서 사용한 방법으로 미국인들이 사용하던 전통적 방법을 잘 개량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한재은 (의대 59) 전 위원장께서 모두 영역 정리해 놓은 각 amendment를 원문에서 변경된 사항이 나올 때마다 옆 오른쪽 column에 표기해 보았습니다.

지난 12월 회보에 실렸던 우리말 회칙 수정본과 이번에 만든 영어 회칙 개정본을 비교해보면 근본적으로 내용은 같지만 구조가 좀 다르고 영어 회칙에 있는 것 중에 우리말 회칙

에는 없는 것이 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들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4월에 열릴 4차 회의에서 첫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의 3차 회의까지는 그동안 평의원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직접 과제로 준 일과 우리 동문회가 회칙에 관하여 지금까지 한 일들을 정리했지만 4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아직 평의원회에서의 토의가 결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평의원 회의에 상정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회칙, 세칙, 또는 개정안의 번역 초안 그리고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과 충고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와주신 회칙 위원회 밖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Fund Management Committee for Alma Mater

Article 1: Purpose

This Committee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raising and operating the Alma Mater Development Fund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 S. A., Inc. The committee shall inherit and develop all the functions of the former "Million Dollar Fund Committee" and shall assist in support activities of the support group of the President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 S. A., Inc.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rporate President).

Article 2: Composition

This Committee shall consist of seven people, including the Corporate President.

Article 3: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Committee Members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shall be persons who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fund management, social projects, accounting and/or law elected by the Assembly of Delegates, based upon recommendation of the Association's local chapter and the Support Group to the Corporate President. The term for Committee members shall be five years and the term for invited members shall be five years for two members, four years for two members, and three years for two members for the purposes of ensuring continuity of business. The Corporate President will be the mandatory member of the committee and his/her term will be concurrent with his/her term as

the Corporate President. The Committee Chair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committee members, upon approval of the Corporate President.

Article 4: Decision-making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in principle be made through majority vote.

Article 5: Duties

The duties of this committee shall consist of recruiting contributions as delineated in Article 1 herein, identifying related issues and collecting and analyzing relevant data, and establishing plans needed for securing long-term financing and performance of operations for the Alma Mater Development Fund. The Committee shall cooperate closely with the Finance Committee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and through such cooperation, shall review overall matters regarding the fund, and shall report the results of such review and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to the Assembly of Delegates. If deemed necessary for the efficient recruitment of contributions and the operation of the fund, the committee shall research methods to effectively undertake miscellaneous fund management and financial duties, and shall report them to the Corporate President, whereupon the bylaws may be supplemented or amended pending the approval of the Assembly of Delegates.

Article 6: Projects/Execution

For the purposes of undertaking the Committee's long-term business, the Committee shall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specific projects intended for the

development of Alma Mater via the administrative support group of Corporate President. Introduction of resolutions to the Corporate President and the Assembly of Delegates and the decision-making shall be documented in writing.

Article 7: Management of Fund

The Committee shall be in exclusive charge of managing income attained through recruitment of contributions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Alma Mater, and shall permanently preserve ledgers, documents and other records regarding its operations.

Article 8: Auditing

The Committee shall present the ledgers, documents and records delineated in the foregoing Article 7 at the request of the Auditor. Financial reports for the Alma Mater Development Fund shall be undertaken as part of the Annual Financial report of the Corporate President, and shall receive annual audits from the Auditor. The results thereof, as a part of Corporate President's Financial and Auditing Report, shall be presented to the Assembly of Delegates.

Additional Provisions:

(1) These rules and regulations shall take effect upon the date of their adoption by the Assembly of Delegates.

File: Appendix 2. Rules and regulations of Alma Mater Development Fund Committee

동창회보 300호 발행 기념 기획

동창회보 창간호를 찾습니다.

회보 편집부는 동창회보 300호(2019년 4월호) 발행을 기념하여 동창회보 창간에 참여한 동문과 회보 창간호를 가지고 계신 동문을 찾습니다. 참여 동문이나 이 분을 알고 계신 분은 다음의 연락처로 3월 15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news@snuua.org

APPENDIX 3

SNUAA-USA Bylaws Amendment History

2018년 6월 현재

1. 미주동창회의 목적이 지역사회 봉사를 추가한다 (제14차 평의원 회의, 2005. 6).

(Chapter I [Purpose], Article 2, Section [1] of Bylaws) Community service shall be added to the "Purpose" of our Organization (Adopted at the 14th Assembly of Delegates, May 21st, 2005). This Amendment shall be deleted because it is considered to be redundant and duplicated to Article 2 (Purposes), (1) 'Charitable and Educational Purposes---' of Bylaws of SNUAA-USA.

2. 모든 전임 미주동창회장들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제16차 평의원 회의, 2007. 5. 19).

(Chapter III, Article 12 [Classes, Numbers, and the Terms of Delegates]) (Section 6 as new addition) All the past Presidents of SNUAA-USA shall serve the office of Delegates (Adopted at the 16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9th, 2007).

3. 'Fund Management Committee'를 'Fund Management Committee of Alma Mater'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16차 평의원 회의, 2007. 5. 19).

(Chapter IV, Article 17 [Committees], Section 4) 'Fund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renamed as 'Fund Management Committee of Alma Mater' (Adopted at the 16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9th, 2007).

4.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약간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6차 평의원 회의, 2007. 5. 19).

(Chapter IV [Directors], Article 16 [Qualification and Number], Section 2) The President may have a few 'Executive Directors' with approval at the Assembly of Delegates if he/she needs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Adopted at the 16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9th, 2007).

5. 총동창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악 후원회, 장학 위원회, 회칙 위원회, 그리고 포상 위원회 등의 상설 위원회를 총회장 직속 위원회로 한다. 각 위원회의 세칙과 인수인계 세칙 그리고 감사 세칙이 통과되었다 (자세한 세칙은 회의록 참조 요망, 제17차 평의원 회의, 2007. 5. 19).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1 [Delegates], Section 2, [o] setting up advisory committee). Four Standing Committees: US Kwan-Ak Sponsor Committee, Scholarship Committee, Rules and Regulations Committee, and Award Committee were created in order to operate and manage the affairs of SNUAA-USA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ules and regulations of those four committees, transfer of business and audit were established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9th, 2007).

6. 재미 서울대 동창회를 '서울대 미주동창회'로 변경한다. 회보 명칭도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로 변경한다. 지역 동창회의 명칭은 '서울대 000동창회'로 한다 (000는 지역명) (제17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English name of our corporation remains the sam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Inc. (Registered in the Certificate of Incorpora-

tion, June 7th, 2001).

7. 지역 동창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회원이 40명 이상이어야 하는 현 회칙 규정을 30명으로 완화한다 (제17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Chapter1, Article4 [Chapters 4]) To be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SNUAA-USA), minimum number of alumni in that local/regional/state SNU alumni association shall be reduced from current 40 alumni to 30 alumni.

8. 미주동창회는 회장 고문 (상임이사 Amendment 4 참조), 모교 발전기금 위원장, IT 위원장, 회칙 위원장, 회보 편집위원장, Brain Network 위원장, 사회 봉사 위원장, 그리고 감사 2인에게 평의원의 자격을 준다 (제17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Presidential advisers (ref. Amendment 4), chairperson of Funds Management Committee for Alma Mater, of IT Committee, of Bylaws Committee, of Editorial Committee of Newspapers, of Brain Network Committee, of Charity Committee and two auditors shall automatically serve as delegates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7th, 2008).

9. '수석 부회장의 명칭을 '차기회장'으로 변경한다 (제17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The title of the First Vice President is changed to the President-elect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7th, 2008).

10. 종신이사회비 \$3,000을 기부하신 분들은 종신 평의원으로 대우한다 (제17차 평의원 회의, 2008. 5. 17).

Each lifetime director (supporter) who has donated \$3000 shall be entitled to serve as a delegate during his/her lifetime (Adopted at the 17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7th, 2008).

11. 위임장은 총회의 성원을 위한 정족수 계산에 사용되지만, 회장 선거나 다른 결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차 평의원 회의, 2009. 5. 16).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4 [Assembly of Delegates], Section 6) Proxy of any Delegate shall be used only for a quorum of the meeting but have no voting power (Adopted at the 18th Assembly of Delegates, May 18th, 2009).

12. 각 지부의 평의원 수는 지부 동창회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지부 동창회와 상의하여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18차 평의원 회의, 2009. 6. 16, 참조: 회의록 안건 #11).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2 [Classes, Number, and Terms of Delegates], Section5) The Number of 'Elected Delegates' from each local Chapter shall be fixed from time to time by the Executive Directors (회장단) with the consultation of local Chapter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members of each Chapter (Adopted at the 18th Assembly of Delegates, cf. # 11, May 16, 2009).

13. 종신이사는 자동으로 평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종신이사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종신이사를 만이 평의원의 자격으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며 이들은 정족수에 포함된다 (제19차 평의원 회의, 2010.6. 15).

'Life-time Directors created (Adopted at the Assembly of Delegates of May 19th, 2007) shall serve the office of Delegate only when he (she) physically attends the Assembly of Delegates (Adopted at the

19th Assembly of Delegates, June 15th, 2010).

14.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신설과 동시 추천위원회 세칙 통과 시키다 (제 19차 평의원회의, 2010. 6. 15, 세칙 참조).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1 [Delegates], Section 2, [o]- Setting up advisory committees) Nominating Committee as standing committee was created and Rules and Regulations of Nominating Committee for the selec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 was established (Adopted at the 19th Assembly of Delegates, June 15th, 2010).

15. 미주 서울대 단과대학 동창회장은 평의원회의에 참석 시에는 자동적으로 평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21차 평의원회의, 2012. 7. 9).

(Chapter III, Article 12 [Classes, Numbers, and the Terms of Delegates]) (Section 7 as a new addition) Presidents of Alumni Association of each College of SNU, only when they attend the Assembly of Delegates, shall serve the office of Delegates (Adopted at the 21st Assembly of Delegates, July 9th, 2009).

16. 평의원이 다른 평의원의 위임장을 가져 왔더라도 참석자 본인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평의원이 아닌 지부동문이 해당 지부 평의원의 위임장을 갖고 회의에 참석시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참석인원 당 하나의 투표권만 인정). 모든 위임장은 정족수에 사용된다. 종신이사는 본인이 평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평의원 자격을 가지게 되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불참시에는 위임장은 허용이 안된다 (제23차 평의원회의, 2014. 6. 28).

(Chapter III [Delegates of Members], Article 14 [Assembly of Delegates], Section 6) Regarding Proxy: A Proxy or Proxies shall not be given voting power. But if a regular Member from the same local Chapter with a Proxy attends the Assembly of Delegates, he (she) can vote by Proxy. In any circumstance, only one vote per a person is allowed. Proxy shall be counted for quorum. The Life-time Director shall serve the office of Delegates only when he (she) physically attends the Assembly of Delegates. Proxy is not allowed when he (she) is absent (Adopted at the 23rd Assembly of Delegates, June 28th, 2014).

17. 현 미주 동창회장의 유고시 승계는 차기회장, 사무총장의 순으로 한다 (제22차 평의원 회의, 2013. 6. 22).

(Chapter V, [Officers], Article 26 [Term] Presidential line of succession upon the incapacity, death, resignation, or removal from office of sitting President follows the order of President-elect and the Secretary General (Adopted at the 22nd Assembly of Delegates, June 22nd, 2013).

18. '미주 관악후원회'의 명칭을 '미주동창회 후원회'로 변경한다 (제23차 평의원 회의, 2014. 6. 28).

'USA-Kwanak Sponsors Committee' is renamed as 'SNUAA-USA Sponsors Committee' (Adopted at the 23rd Assembly of Delegates, June 28th, 2014).

19.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구 100만 불 기금위원회) 세칙이 통과된다 (제23차 평의원회의, 2014. 6. 28).

(Chapter4, Article 18 [Fund Management Committe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Fund Management for Alma Mater (SNU Advancement) were passed.

>> 을 버리지 않고 서양국가와의 통상을 거절하다가 아편전쟁을 맞이하고 급격하게 쇠락했다. 결국 망해가는 청에 의지 한 조선도 청과 같은 운명으로 망한다. 종래의 조선역사 교육은 당파 싸움을 강조했다. 조선사람은 단결을 못하고 서로 싸운다는 조선사람 비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이 중국에 크게 예측되지 않은 독립국가라는 인상이 강한 역사를 배웠다. 전자는 일본사람이 조선사람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조선을 청으로 부터 분리시켜서 조선을 지배하려는 계략일 것이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태평양세력이 대립하는 지점에 위치 한다. 약소국이었던 한국은 항상 이들의 전쟁 티였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노일전쟁, 한국전쟁 등은 한반도를 두 세력의 병참기지화했다. 이때마다 한국인들이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의 안보를 외세에 의존하고 부국강병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사대의 어리석음을 가르쳐서 선조들의 불찰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국과 조선의 관계가 중추국-중속국의 관계였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BY-LAW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 S. A.	
By-Laws	Amendments
CHAPTER 1. GENERAL	
Article 1 (Name)	Amendment 6
The name of this Corporation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 S. A.	Korean name of this Corporation is changed from 재미 서울대 동창회 to 서울대 미주 동창회. The English name remains the sam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Inc. (Registered in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June 7th, 2001).
Article 2 (Purposes)	
(1) The Corporation is organized and shall be operated exclusive-ly for charitable and educational purpos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70 (c)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s amended (the "Code"). In furtherance of its purpose, the Corporation shall promote a mutual friendship among the alumn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intain and en-hance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in-dividual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and provide continued efforts and contributions on behalf of the alumni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lma Mater.	
(2) No substantial part of the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the carrying on of propa-ganda, or otherwise attempting to in-fluence legislation, and the Corpo-ration shall not participate in or intervene in (including the publication or distribution of state-ments)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3) The Corporation shall not conduct or carry on any activities not permitted to be conducted or carried on by an organization exempt under Section 501 (c) (3) of the Code and the regulations promulgated thereunder as they now exist or as they may here-after be amended, or by an organiza-tion exempt under Section 170 (c) (2) of the Code and the regulations promulgated thereunder as they now exist or as they may hereafter be amended.	
Article 3 (Offices)	
(1) The executive office of the Corporation shall be placed in a State where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shall determine to be convenient for the officers of the Corporation to per-form their offices.	
(2) The Corporation may have additional of-fices in different loca-tions which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termine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 to do its business.	
Article 4 (Chapters)	
(1) Any regional, state or loca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perated in the U. S. A. which has not less than 40 alumn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its members may be admitted, upon its application in a form prescrib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and upon approval thereof by the "Delegates" (defined hereafter), as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in that region, state, or locale, provided that the applicant association agrees to abide by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Corpora-tion.	Amendment 7 (Chapter1, Article4 [Chapters 4]) To be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SNUAA-USA), minimum number of alumni in that local/regional/state SNU alumni as-sociation shall be reduced from current 40 alumni to 30 alum-ni.
(2) Any regional, state or loca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perated in the U. S. A. which has 40 or more alumn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its members may be admitted, upon its application in a form prescrib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reof by the Board of Directors subject to ratification there-of by the Delegates, as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in that region, state, or locale, provided that the applicant	

association agrees to abide by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Corporation.	
(3) Each Chapter may be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 at its will and wish provided that its activities and affairs shall be man-ag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f its own governing body in a manner set out in its application for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subject to and in conformity with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Corporation.	
(4) Each Chapter of the Corporation shall not engage in the car-rying on of propa-ganda, or otherwise attempting to influence legislation, and shall not participate in or intervene in (including the publication or distribution of statements)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5) Each Chapter of the Corporation shall not conduct or carry on any activities not permitted to be conducted or carried on by an organization exempt under Section 501 (c) (3) of the Code and the regulations promulgated thereunder as they now exist or as they may hereafter be amended, or by an organization contribu-tions to which are deductible under Section 170 (c) (2) of the Code and the regulations promulgated thereunder as they now exist or as they may hereafter be amended.	
(6) No Chapter of the Corporation shall au-thorize the use of the word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or "Seoul National Alumni Association" or any similar words in any language by any other organization or entity or any individual without consulting the Corporation first.	
(7) Any individual who was enrolled as a full time student of a college or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a member of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rep-resenting a region, state, or locale in the U. S. A. where he or she has residence, subject to standing requirements which that Chapter may im-pose upon its members.	
(8) In the event that any Chapter of the Corporation may have a different view from any other Chapter regarding the scope of its jurisdiction, the matter shall be resolved in good-spirit efforts by all concerned Chapters of the Corporation in conformity with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Corporation, and any resulting resolution shall be referred to the Delegates promptly for the Delegates' confirmation that the resolution conforms to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Corporation. In the absence of reso-lution of the matter by all concerned Chapter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y concerned Chapter may refer the matter to the Delegates for recom-mendation and all concerned Chap-ters shall be bound by, and give full respect to, any recommen-dation of the Delegates.	
(9) The Corporation shall respect the region-al, statewide or local business or responsi-bilities of a Chapte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hapter. Each Chapter of the Corporation shall give full re-spect and support to the U. S. A. -wide, national, and nationwide busi-nes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rporation. Subject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a Chapter and the Corporation may b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subject to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Delegates	
(10) For the purposes of these By-laws, the term "U. S. A." shall me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ts territories. The term may also include any such other countries or regions in North America as the Delegates may fix from time to time.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 2차 회기: 2017.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회장단 이월금	SNUAA, Inc (남가주) 700 T. H. & Asso. 1,0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진호 (12/26) 400 김인중 (181105) 7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발전기금 (12/6) 7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서울대병원 강남 (8/31) 380 서울메디칼 (3/15) 1,000 서울메디칼 (12/26) 1,000	임필순 (의대 54) 100 전방남 (사대 73) 200 전상욱 (사대 52) 500 전영자 (미대 58) 350 정진수 (공대 56) 425 조영원 (약대 50) 500 최선희 (문리 69) 200 최수강 (의대) 100 황현상 (의대 55) 100	뉴욕 강애드 (사대 60) 400 곽선섭 (공대 61) 225 곽승용 (의대 65) 200 김명철 (공대 60) 2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200 김재경 (농대 58)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경원 (미대 66) 25 박두선 (공대 68) 100 박상원 (문리 54) 40 박종재 (의대 63) 200 배병애 (간호 47) 67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랑 (의대 63) 200 신용남 (농대 70) 2,000 양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윤순 (의대 52) 725 이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행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한인섭 (약대 63) 500 허선행 (의대 58) 600 허유선 (가정 83) 100	이석호 (공대 78) 200 최중권 (문리 59) 200	김영남 (의대 61)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박우선 (공대 57) 200 임준수 (의대 57) 200 송영두 (의대 56) 700 신성식 (공대 56)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이성숙 (가정 74) 250 이지춘 (미대 57) 125 제갈은 (문리 59) 150 전무식 (수의 61) 200 주기욱 (수의 68) 200 조정현 (수의 58) 500 조화연 (음대 64) 150 지홍민 (수의 61) 400	
총동창회 보조금	3,0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3,000					
업소록 광고비	강호석 (상대 81) 240 김원탁 (공대 65) 240 김일영 (의대 65) 240 김창수 (약대 64) 240 김 폴 (수의 81) 480 남옥현 (경영 84) 480 독고원 (공대 65) 240 박종호 (의대 79) 240 서동영 (사대 60) 480 석창호 (의대 66) 240 신동국 (수의 76) 480 신용남 (농대 70) 240 신혜원 (사대 81) 240 엄달용 (공대 69) 240 엄동해 (농대 74) 240 윤세웅 (의대) 240 이경림 (상대 64) 720 이병준 (상대 55) 480 이종모 (간호 69) 480 이준영 (치대 74) 240 임낙균 (약대 64) 480 정새근 (자연 82) 240 정수만 (의대 66) 240 정정우 (수의 74) 240 정재훈 (공대 64) 720 주기욱 (수의 68) 240 지홍민 (수의 61) 240 최무식 480 아주관광 Discount 상품권 협찬 S.B. Foot Clinic 480	신용남 (농대 70) 1,200 심원섭 (의대 67) 1,800 최용완 (공대 57) 100 한남체인(3/15) 1,000 한남체인(12/23) 1,000	뉴욕 3,000 워싱턴 DC 2,000 조지아 600 알라스카 200	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대 64) 200 김성호 (법대 64) 200 김 영 (수의 63) 500 김영순 (음대 59) 600 김원탁 (공대 65) 400 김인중 (농대 74) 25 김일영 (의대 65) 200 김재영 (농대 62) 240 김종표 (법대 58) 500 김진형 (문리 55) 1,500 김창신 (사회 75) 100 노명호 (공대 61) 3,000 문석면 (의대 52) 200 민수봉 (상대 55) 25 박인창 (농대 65) 100 박종수 (수의 58) 3,100 방석훈 (농대 55) 200 백옥자 (음대 71) 600 위종민 (공대 64) 200 유재환 (상대 67) 200 유창호 (약대 74) 300 이건일 (의대 62) 300 이명선 (상대 58) 500 이범모 (치대 74) 200 이범식 (공대 61) 400 이병준 (상대 55) 11,000 이영송 (치대 63) 400 이영일 (문리 53) 200 이현찬 (치대 75) 200 임창희 (공대 73) 100 전경철 (공대 55) 400 전희택 (의대 58) 200 정규희 (의대 66) 200 정동주 (공대 57) 500 정재훈 (공대 64) 270 정희영 (치대 58) 100 조상하 (치대 64) 125 조한원 (의대 57) 100 최은관 (상대 64) 300 하기환 (공대 66) 200 하선호 (치대 81) 200	이석호 (공대 78) 200 최중권 (문리 59) 200	김영남 (의대 61)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박우선 (공대 57) 200 임준수 (의대 57) 200 송영두 (의대 56) 700 신성식 (공대 56)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이성숙 (가정 74) 250 이지춘 (미대 57) 125 제갈은 (문리 59) 150 전무식 (수의 61) 200 주기욱 (수의 68) 200 조정현 (수의 58) 500 조화연 (음대 64) 150 지홍민 (수의 61) 400
모교발전기금	강창운 (의대 72) 75 권기현 (사대 53) 1,000 권철수 (의대 68) 100 김시근 (공대 72) 300 심상은 (상대 54) 25 유재환 (상대 67) 125 윤상래 (수의 62) 2,100 윤우용 (공대 63) 1,000 오동환 (의대 75)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강홍 (상대 60) 300 임종식 (의대 51) 1,000 정동주 (공대 57) 500 정태광 (공대 74) 200	김창희 (미대 65) 25 손재욱 (가정 77) 500 윤상래 (수의 62) 5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건형 (문리 71) 50 차수만 (약대 71) 200 황선희 (공대 74) 100				
광고비	DUO Info. 1,200 DUO Info. 400 DUO Info. (10) 400 DUO Info. (11/6) 400 DUO Info. (12/8) 400 DUO Info. (1/9) 400 DUO Info. (2/8) 400 DUO Info. web (2/23) 500 DUO Info. (4/2) 400 DUO Info. (4/30) 400 DUO Info. (6/11) 400 DUO Info. (9/5) 400 DUO Info. (10/9) 400 DUO Info. (11/14) 400 DUO Info. (12/5) 400 JayoneFood (1/22) 1,800 JayoneFood (11/26) 1,800 KCNews.net (8/15/18) 200 KCNews.net (11/5/18) 425 KISS (1/17) 3,000 NY Golf (6/18) 1,000 NY Golf (8/9/18) 1,000 NY Golf (8/31/18) 1,000 SeAh 이병준 1,500 SNUAA, Inc (남가주) 500	강창운 (의대 72) 75 권기현 (사대 53) 1,000 권철수 (의대 68) 100 김시근 (공대 72) 300 심상은 (상대 54) 25 유재환 (상대 67) 125 윤상래 (수의 62) 2,100 윤우용 (공대 63) 1,000 오동환 (의대 75)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강홍 (상대 60) 300 임종식 (의대 51) 1,000 정동주 (공대 57) 500 정태광 (공대 74) 20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2,000 고종성 (사대 75) 200 김문소 (수의 61) 80 김병국 (공대 71) 65 김선혁 (약대 59) 100 김은한 (의대 60) 1,250 김재호 (공대 56) 100 송미자 (농대 62) 65 윤상래 (수의 62) 40,8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이인 (공대 68) 1,100 이재신 (공대 57) 2,000 이희규 (공대 69) 200 전신의 25 정선주 (박영철) 3,000 정정웅 (의대 60) 1,4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해숙 (간호 66) 65 최선희 (문리 69) 200 최종균 (공대 69) 2,000	이석호 (공대 78) 200 최중권 (문리 59) 200	김영남 (의대 61)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박우선 (공대 57) 200 임준수 (의대 57) 200 송영두 (의대 56) 700 신성식 (공대 56)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이성숙 (가정 74) 250 이지춘 (미대 57) 125 제갈은 (문리 59) 150 전무식 (수의 61) 200 주기욱 (수의 68) 200 조정현 (수의 58) 500 조화연 (음대 64) 150 지홍민 (수의 61) 400	
라스베가스	윤우용 (공대 65) 500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2,000					
북가주	강정수 (문리 62) 125 김윤범 (의대 54) 300 김정희 (음대 56) 200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1,000					
텍사스						
필라델피아						

중신 이사비 (\$3,000 이상 / 73명)

골드 중신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한귀희 (미대 68)*	서지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원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노명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뉴욕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윤정욱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손석보 (공대 68)	텍사스 김광호 (문리 62) 오인석 (법대 58)* 윤정욱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사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하이오 김영현 (경영 66)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봉 (법대 60) 방은호 (약대 43)	워싱턴 DC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인환 (문리 63)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텍사스 김정희 (음대 56) 이성형 (공대 57) 150 이상봉 (수의 67) 240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for the 2018-2019 period. Columns include member names, addresses, and dues amounts. Includes sections for '남가주' and '북가주'.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for the 2018-2019 period. Columns include member names, addresses, and dues amounts. Includes sections for '남가주' and '북가주'.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with 4 columns: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Lists donation amounts and options for scholarship, charity, and other funds.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orm for member information including fields for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주소, and Cell Phone.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산용 공인회계사)
강산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 (L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A, CA 90010

임춘택 공인회계사
(상대 68)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s
김원철 (농대)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KOOG WON KWUN CPA & ASSO, INC
권국원 (공대)
Tel. (213) 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엄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el) 323-965-1717 / Fax)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CareMax Pharmacy
Chang H. Yoo, RPh./ Dr. 유창호 (약대 74)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Cell: 909-229-777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s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 (909) 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명문 (수의대 64)
Tel.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종 (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axa-advisors.com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irect: 213-262-3805, T: 213-262-3800,
F: 213-262-3810, Mobile: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공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문의: D.C. 상풍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시오.
<편집부>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정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9개국 선교지 12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디자인)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옥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희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희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홍 (법), 이석구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원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dau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욱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병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설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차기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통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TAYCO
ENGINEERING, INC.
"30 Years of Proven Performance"

About Tayco Tayco Engineering, Inc. designs and manufactures heating systems, temperature sensors, flexible cable, and other specialty products that are marketed worldwide. Our ability to provide innovative engineering solutions to technically demanding requirements with the highest commitment to quality has enabled us to become a leader in our industry.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Temperature Sensors,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 www.taycoeng.com

jayone.com
15
SINCE 2004
ANNIVERSARY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결혼해 듀오

DUO USA 3701 Wilshire Blvd. #1122, Los Angeles, CA 90010

듀오
LA 213-383-2525
NY 212-947-2525



한남체인의 門

새벽 5시,
고객을 맞을 준비로 바쁜 LA 한남체인

저렴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문,
신선하고 또 신선한제품에만 너그러운 문,
품질이 좋지 않으면 굳게 닫히는 문,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에겐 활짝 열려있는 문 -

**어서오세요! 여기는 365일,
고객과 함께하는 한남체인입니다**

하기환 (공대 66)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토렌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4

